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여성시대

양희은 · 강석우입니다

2015 March 03

이달의 편지
따스한 말 한마디 외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나는야 '객지 엄마'

ONE뱅킹 400만명 돌파기념 이벤트

IBK ONE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이벤트기간 : 2015. 2. 2(월) ~ 2015. 3. 31(화)

당첨자발표 : 2015. 4. 10(금), 홈페이지 게시

하나! IBK ONE뱅킹 400만 고객님~ 감사합니다!

400만번째 가입고객	399만, 401만번째 가입고객
골드바(200만원 상당) 1명	실버바(40만원 상당) 2명

*골드바, 실버바는 제세공과금 22% 고객 본인부담

둘! IBK ONE뱅킹 최초 이용고객에게 드리는 행운!

IBK ONE뱅킹 최초이용고객

프로도 핫초코& 던킨 글레이즈드 800명

*응모방법 : ONE뱅킹(개인) 앱 內 전체메뉴 →이벤트→이벤트 소식→'IBK ONE!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이벤트 선택→ '응모하기 1' 선택→성명, 핸드폰번호 입력

*IBK ONE뱅킹 최초이용이란? 이벤트 기간 내 IBK ONE뱅킹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최초로 서비스 이용 (계좌조회 등)

ONE뱅킹 최초이용고객 중 비대면 상품 가입 고객

1만원 문화상품권 300명

*비대면 상품 가입고객이란? 인터넷뱅킹 또는 ONE금융센터앱(App)에서 예/적금 상품 또는 대출상품 이용고객

셋! 퀴즈 정답고객에게 드리는 행복!

Q : 「IBK ONE!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는 언제·어디서나 은행업무가 가능한 IBK ONE뱅킹 가입고객 ___명 달성을 기념하는 이벤트 입니다.

①400만 ②300만 ③200만 ④100만

엔젤리너스 아메리카노 200명

*응모방법 : ONE뱅킹(개인) 앱 內 전체메뉴→이벤트→이벤트 소식→ 'IBK ONE!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이벤트 선택→ '응모하기 2' 선택→ 성명, 핸드폰번호 입력 및 정답 선택

NOTICE!
- 본 이벤트 기간, 내용 및 경품은 사전 고지 없이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지 될 수 있습니다.
- 교환일이 지난 기프티콘에 대해서는 재발송되지 않으며,당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IBK ONE 서비스 및 금융상품 거래시 기입하신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과금 될 수 있습니다.
- 5만원 초과 경품의 경우 제세공과금(22%)는 본인 부담이며, 30일 이내 경품 미수령 또는 잘못된 회원정보(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주소)등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당첨시 최상위 경품으로 1회 지급합니다.
- 기존 IBK ONE 서비스 및 금융상품의 탈퇴 후 재가입, 어플리케이션 삭제 후 재설치는 참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간내에 상품 가입하여 이벤트 종료기간까지 유지한 고객에 한합니다.
- 이벤트 경품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상품 실물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이벤트 상세내용 및 개별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1566-2566/1588-258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5-122호(2015.01.21)

· 기타 이벤트 및 개별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e-mail: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contents 2015년 3월호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1**
나는야 '객지 엄마'

08 **이달의 편지**
따스한 말 한마디 외

70 **행복을 찾는 사람들**
㈜비엔씨 코리아 김미경 대표

78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2**
헌옷아빠의 새 웃음

84 **코너 속 편지**
13년 정든 가게를 곧 비우려고 합니다 외

106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맞벌이 부부의 육아법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꽃피는 시절

112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아빠를 부탁해

114 **행복한 책 읽기**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15년 3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광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 한재희, 서미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59 **주소** (121-904)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 · 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최솜이 **월간지**(비매품)
※ 본지는 한국도서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위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마산**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나는야 '객지 엄마'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하숙집을 하고 있는 이승일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밥 좀 많이 먹어."

식탁에 앉은 하숙생들에게 하숙집 아줌마 이승일 씨는 연신 밥을 더 먹을 것을 권한다. 여느 엄마들이 자식에게 하는 달콤한 잔소리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에 위치한 하숙집을 들어서면 나무들이 먼저 반겨준다. 감나무 가지가 멋들어지게 휘어진 마당에는 모과나무, 살구나무, 단풍나무, 목련나무, 대추나무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마당이 훤히 내다보이는 부엌에서 하숙생들에게 '객지 엄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승일 씨의 손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바쁘기만 하다. 객지에 나와 청춘의 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하숙생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다.

하숙집의 꽃은 단연 '밥'이다. 갓 지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밥과 푸짐한 고기반찬이 사시사철 식탁을 채우고 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전에 비해 밥에 목숨 걸지 않는다. 밥에 집착하지도 않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하숙집 분위는 예전과 사뭇 다르다.

아침이면 모두가 식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고, 초저녁이면 안방에

모두 모여 배 깔고 엎드려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늦은 저녁이면 술파티가 벌어지던 풍경은 희미한 기억 속에 파묻혔다.

'객지 엄마' 이승일 씨가 처음 하숙집을 할 때는 한 달에 쌀이 한가마니나 비워지고, 딸기를 한 광주리 사면 하루 만에 바닥이 보이고, 하루에 식빵 큰 거 두 봉지가 가뿐하게 비워졌었다. 그런데 요즘은 먹는 것보다는 늦잠을 자겠다는 아이들로 식탁은 썰렁하다.

이승일 씨의 하숙집은 방이 모두 14개. 방이 없어 하숙생을 받지 못하던 시절은 이미 옛이야기다. 그러다 보니 방 한두 개는 늘 남아 있다. 그 남은 방은 요즘 외국인들 차지가 됐다. 단기어학연수를 오는 외국학생들이나 여행을 오는 여행객들로 채워진다.

작년 여름에 한국어를 배우러왔던 일본인 나루미 씨는 한 달간 머물다 돌아간 후 그간 4번이나 하숙집에 머무는 단골 하숙생이 됐다. 한국인 남자친구가 '한국어를 빨리 배우려면 하숙집에 머무는 게 좋다'고 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았다며 식탁에 오른 불고기에 환호성을 질렀다. 또 중국에서 영어강사를 하고 있는 미국인 청년도 두 번이나 찾아왔고, 중국인 러시아인 친구들도 간혹 묵고 간다. 이젠 하숙집과 게스트 하우스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이다.

물가가 근 이십년 사이 가파르게 오르며 하숙집 운영도 만만치 않다. 빈방은 늘어가는 데 난방비와 부식비는 점점 오르니, 차 떼고 포 떼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도 '객지 엄마'는 먹는 데 돈을 아끼지 못한다. 아이들을 위해 매번 새 밥을 짓고, 뭘 해 먹이면 잘 먹을까 늘 고민이다. 주방 한가운데 놓인 텔레비전을 통해 요리프로를 섭렵하고 있다.

오늘도 '객지 엄마'는 저녁을 해 놓고 아이들에게 카톡을 보낸다. 〈오늘 배추찜과 온반을 해 놓았으니 어서 들어와 밥 먹자!〉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위층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보낸다. 밥을 향한 '객지 엄마'의 사랑은 멈출 줄 모른다.

건설업을 하던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지며 시작한 하숙집은 이제 햇수로 18년째. 18년 동안 이 하숙집을 거쳐 간 학생들이 아이를 낳았다며 찾아오고, 직장에 들어갔다고 소식을 전한다. 밥으로 맺어진 끈끈한 정이 이어지고 있다.

"젊은 학생들이 낡은 집에 묵겠다고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요. 이제 7년 후면 제 나이 일흔이니 그때는 젊은 학생들 말고 나이 먹어가는 노년의 하숙생들을 받아볼까 해요. 함께 걸레질도 하고 나물도 다듬으며 그렇게 늙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숙집은 봄이 가장 부산하고 싱그러운 때란다. 신입생들이 새로운 가족으로 한자리를 차지하니 그만큼 활기가 더해진다.

봄이다. '객지 엄마' 이승일 씨의 손이 더 분주해진다.

이달의 편지

10 따스한 말 한마디
14 양파 한 자루에 오천 원
18 아들이 보낸 20만 원
21 엄마, 나 시집가요
25 일본의 어린이집 29 깨어라 대한민국!
33 기억 속으로 36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40 버리고 싶은 아버지 44 미처 하지 못한 감사 인사
48 아버지의 은퇴 밀당 52 유서 쓰는 밤
56 그리운 선생님
61 삼포세대인 우리 집 아들

일러스트 | **이경선** chungpo@naver.com

3월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단연 노랑이나 분홍일 겁니다. 아직 곳곳에 꽃이 피지 않았지만 이미 온 동네에 꽃이 만발한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개나리도 진달래도 서서히 고개를 드는 3월의 이달의 편지는 꽃보다 더 곱고 화사합니다.

이번 달 이달의 편지 안에 실린 '아들이 보낸 20만 원'이 방송되자 많은 여성시대 가족들이 문자와 미니를 통해 사연의 주인공께 덕담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듣는 분들의 가슴을 두드렸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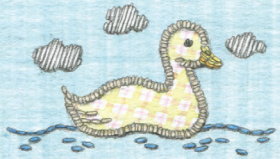
편지와 함께 동봉한 20만 원을 두고 저희 제작진은 오랫동안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더 어려운 분들을 헤아리는 따뜻한 어머니의 숨결이 묻어있는 그 돈을 고민 끝에 다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20만 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드리느냐는 문제가 그리 간단치가 않아서였습니다. 여성시대 가족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지펴주신 어머니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봄을 더 화사하게 꾸며주는 것은 단연 어린이들의 사연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방송되고 있는 '행복한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캠페인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생각을 들여다보며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나는 이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받은 글은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손편지'는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편지를 실었습니다. 연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내려갔을 모습을 상상하며 입이 꽃처럼 저절로 벙글어집니다.

Letter 1

따스한 말 한마디



권영숙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저는 남편과 함께 옷 만드는 일을 27년 동안 했습니다. 자그마한 점포에서 재봉틀 몇 개 놓고 남성복을 만들고 있었지요. 요즘 등산복을 많이 입는 추세라 그런지 남성 의류 매장을 찾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을 몇 년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작년 6월 1일 자로 저희에게 옷 제작을 의뢰했던 업체로부터 폐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노랗다 못해 까맣게 보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껏 한우물만 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는 대학생인데, 앞으로 학비도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찾아가 일거리를 부탁했지만 다들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들어놓은 남성복이 쌓여 줄줄이 재고 처리를 하는 데도 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일거리를 주려고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매일 한숨만 쉬던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 다른 일자리를 한번 알아보자. 우리 남의 밑에 가서 다른 일을 배우자." 저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해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십을 한참이나 넘긴 저희 부부는 난생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닭 공장에서 냉동된 닭을 물에 녹이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무거운 닭 바구니를 옮기며 무척이나 힘들 텐데도 아무 말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퉁퉁 부은 손을 아침마다 주무르는 걸 보며 제 마음이 참 짠하더군요. 남편은 요즘 평생 안 마시던 커피를 한잔씩 마시고 파이팅을 외치며 출근합니다.

저는 아는 분의 소개로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재봉 일인지라 재봉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이라는 게 처음이라 겁도 많이 났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커피 대신 청심환을 먹었습니다. 저는 일반 병원이나 요양 병원에서 사용하는 간호복과 환자복 그리고 침대 시트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는 품목이 생각보다 다양하더군요. 정신병동에서 쓴다는, 과격한 행동을 하는 환자들을 묶어두는 보호대가 있는 데 솜을 두둑이 넣어 만들어야 합니다. 혹시 환자가 다칠까봐 솜을 많이 넣나 봅니다.

7개월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새로 배운다 생각하고 자존심은 출근할 때 집에 두고 오는 데도 잘못 만들어서 혼날 때는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다

시 자리에 와서 잘못된 걸 수선하는 데, 만드는 것보다 수선하는 게 정말 힘들답니다.

출근 한 달쯤 됐을 때 제가 오버로크를 치다 침대시트를 못쓰게 잘라버리기도 하고, 간호복을 만들다 이름표를 바꿔 달아서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침대시트는 크기가 엄청나서 저처럼 자그마한 사람은 팔도 아프고 고무가 들어 가기에 손도 많이 아프답니다. 남자들도 침대시트는 힘들다고 하네요.

작업지시서 제대로 못 봐서 사장님 고함 소리를 듣고 자지러지게 놀라 가슴 쓸어내리던 날 저녁에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 자리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또 어딜 가서 무얼 해야 하나. 하루하루 사는 게 겁이 난다. 남들은 내 나이에 손주들 재롱이나 본다고 하는 데 난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딱 두 잔 받아 마셨는데, 취기가 오르며 제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게 느껴지던지요.

술자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려고 인사를 나누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꼭 안아주며 귀에다가 이러는 겁니다. "지금껏 잘 견뎌주어서 고마워. 여태 참아주어서 감사해.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러더니 제 등을 토닥거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동갑내기 반장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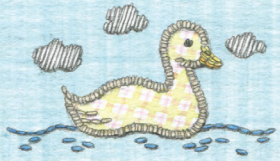
저는 그 순간 왈칵 울어버렸습니다. 제가 울음을 터트리자 반장은 "그래 실컷 울어. 그 대신 오늘만이야. 내일부터는 우리 친구하자. 동갑이니 친구하면 참 좋겠다. 그래 줄 거지?" 그러더군요. 그날부터 저에게는 참 좋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영미입니다. 그 친구가 없었으면 전 지금쯤 뭘 하고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감히 이름조차 부르기 아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그 친구와 매일 점심도 함께 먹고, 휴일엔 산책도 하고 장도 함께 봅니다. 나의 친구 영미에게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방송을 통해 하고 싶습니다.

"영미야, 너의 따스한 인정과 온화한 말에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영미야, 고마워. 그리고 우리 예쁜 추억도 많이 만들며 살자. 훗날 더 늙어 할매가 되어서도 웃을 수 있게 말이야."

Letter 2

양파 한 자루에 오천 원



박선교 | 경기도 여주시 월송동

"양파 한 자루가~ 오천 원~ 오천 원~ 무안 양파! 저장 양파가 한 자루에~ 오천 원~ 오천 원~ 자~아~ 얼른 얼른 나와서 가지고들 가세요! 돈만 내고 무조건 가지고 가세요! 내일도 오천 원은 아닙니다! 양파가 한 자루에 오천 원~ 오천 원~!"

이 소리는 제가 새벽 찬이슬을 가르며 가락동시장에서 물건을 받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외쳐대는 자연산 삶의 소리입니다. 남들은 엄동설한에 매섭고 추운 찬바람이 살갗을 파고든다고 종종 걸음을 치고 있지만 제 삶은 그 매서운 추위와 친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앞뒤를 보며 곁눈질 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석에 누워 있는 아내를 위해 더 바쁘게 일을 해야 하는 게, 제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토목과를 전공한 저는 건설현장에서 미래의 편안한 삶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며 일벌레 같이 살아 왔습니다. 그 결과로 건설회사를 차릴 수 있었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 인생은 처음엔 순풍에 돛을 단 듯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불황은 왔고, 힘들게 회사를 지키려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해 저는 자식같이 생각한 애들 둘만 남기고 그 많던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자식같이 생각했던 경리 여직원과 공무 및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남자 직원 두 사람이 북 치고 장구 치고 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젊은이들보다 컴퓨터에 약한 50대의 설움으로 뜻하지 않게 회사를 날렸고, 30년 건설에서의 외길 인생도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법에 호소도 해보았고, 증거가 다 있음에도 결국 법에서는 졌고, 일부는 법정 투쟁 중이랍니다.

그때부터 저는 14년 된 1톤 화물차를 끌고 가락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가득 싣고 가다보면 오래된 차라 고장 나기 일쑤였습니다. 수없이 견인되어 좌절과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노점에서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설움조차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양파 한 자루를 더 팔기 위해 수 없이 많은 식당을 드나들어야 했고, 자정이 될 무렵이면 밤늦게 귀가하는 행인이 많은 곳을 찾아가 채소를 팔다보면 새벽이 다가 옵니다.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부치고 가락동을 가는 일도, 24시 찜질방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일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식당으로 채소를 들고 가서 사라고 하면 대부분 "있어요! 아 있어요, 아저씨!"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식당 아지매들의 냉랭한 눈초리는 무시한다쳐도 한 자루의 양파를 밀어 넣기에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앞에 다가가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식당 문만 뚫어져라 바라보곤 했습니다. 길고 긴 하루하루의 연속이었고, 한여름 기진맥진 끝에 인적이 드문 곳의 그늘을 찾아 차를 대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노라면 차에 실린 채소는 주인과 더불어 시들시들해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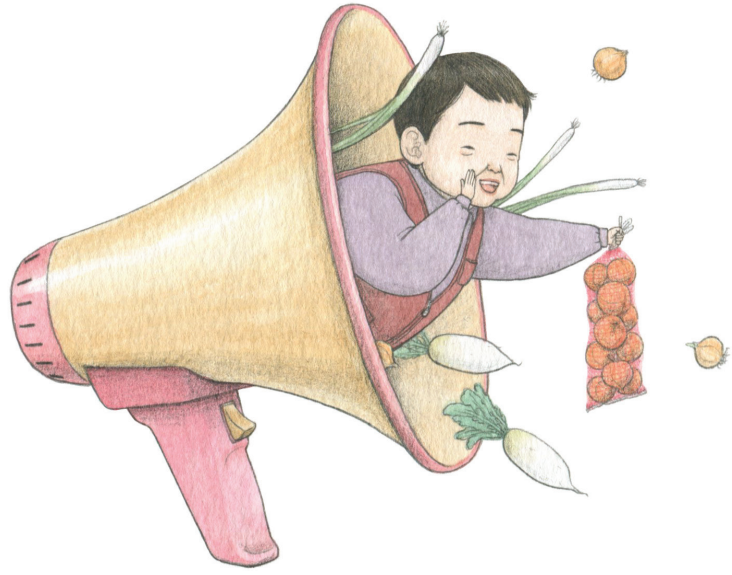
아내의 약 한 봉지를 위해 전혀 안면이 없는 식당을 하루 종일 누비며, 그렇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더니 끼니 거르는 것은 일상이 되어 버렸고, 제 몸은 어느새 깡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양파란 겉은 뻘겋고 속은 하얗다는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었던 제가 장사 3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양파, 배추, 무, 총각무, 대파 등 각종 채소를 가득 싣고 제법 아는 체를 하면서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꽤 된답니다. 두려움도 없어졌고 많이 뻔뻔스러워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식당의 셀프커피는 내 것인 양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안면을 터놓았으며, 서로 농담도 할 수 있는 웃는 얼굴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락동 생활 3년 동안에 변화된 것은 살고 있던 집이며, 상가건물, 부모님께 상속받은 토지, 30년간 바라봤던 건설회사가 자식같이 생각했던 사람의 장난질로 인해 경매로 모두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이 찾아와 "이제 내 집이니 비워주시오!"라고 하더군요. 난생 처음 내 집을 지어봤고, 평생 살 집이라 생각하여 저의 진두지휘 하에 폼 나게 지었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모두가 탐을 냈던 건물인데 엉뚱한 사람이 쳐들어와서 자기네 집이라며 나가라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는 이유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병석에 누워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나를 하늘같이 바라보는



아내의 큰 눈 때문이기도 합니다. 갈 길이 참 멀고 험난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 뛰고 뛰어도 멀게만 느껴졌던 것 같이 말입니다.

오고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쁘다고들 합니다. 밥 먹듯이 불경기, 불경기라고 합니다. 그래도 남성시대 가족 여러분! 힘을 내봅시다! 힘이 들수록 남자란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만이 보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남성이고 가장이라는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힘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시여! 떨어진 낙엽을 사람들은 밟고 또 밟고, 그러다가 흔적 없이 사라진 것 같지만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올 때면 그 속에서 무언가의 밀알이 되어 꽃을 피우듯이 인생이란 것이 물레방아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말입니다.

Letter 3

아들이 보낸 20만 원

애청자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시대 덕분에 오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50대 후반의 아줌마입니다.

"엄마, 미안해.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전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엔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빚 좀 갚고 남은 돈 20만 원 송금했으니 추운데 걸어 다니지 말고 버스라도 타고 다니세요." 아들의 그 말에 "그래, 밥은 먹고 지내냐…" 말을 하려는데 눈물이 목을 꽉 막아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른 살이 넘도록 있는 대로 속을 썩이던 자식이 엄동설한에 공사장에서 한뎃잠을 자며 순전히 노동으로 번 돈을 보낸 것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게임중독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던 아들이 빚에 깔려 죽을 고비를 넘기다 일어선 것이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고생하시는 작은아버지를 따라 아들이 한밤중에 집을 떠나던 날, 저는 마치 큰 바위가 빠져 나간 듯 휑한 아들의 방에서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한꺼번에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닿을 바닥도 없는 아들, 세상이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자식이었기에 이제라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한때는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같이 죽어버리자"고 힘겨운 현실에서 도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님을 알기에 마지막처럼 선택한 일터에서 한줄기 빛이 되어준 것은 바로 〈여성시대〉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여성시대 가족들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으며 힘든 날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여성시대를 만나고부터는 그동안 힘들 때마다 눈물이 나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 연습을 하던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컴퓨터에 붙들려 세상의 시간을 다 죽이고 있는 동안 저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벽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여성시대 덕분입니다. 여성시대가 아니었으면 끝내 길을 헤매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두 분의 밝은 목소리는 상처 입은 가슴에 꿈을 심어주었고, 저를 세상으로 이어준 든든한 징검다리였습니다.

하여 생전 처음 아들에게서 받은 20만 원을 여성시대에 보내니 저보다 힘든 사람이 있거들랑 조금이나마 보태어주셨으면 합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했던 일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죄 받을 길이 없어서입니다. 이것이 고개 숙인 어미의 간절한 마음이라 여겨 액수가 적어 부끄럽지만 받아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마음 빚 좀 갚고 살아야지 하는 바람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살아오는 동안 이웃들께 참으로 신세 많이 지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세 살 때 남편이 집 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 되어 평생 뒷걸음치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고스란히 빚 갚는데 쓰이고 쌀 한 됫박 살 수도 없을 때 직원들이 숙직비를 모아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남편은 늘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술이라도 마신 날이면 죽어버린다고 한밤중에 길가에 쓸리는 낙엽처럼 뒹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달려 나가 남편을 일으키려 했지만 꿈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주저앉아 신세한탄을 할 때면 "엄마, 울지마. 내가 잘할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 태산도 지고 넘을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아들, 앞으로 잘살 수 있겠지요! 제 바람처럼 세상 사람들도 모두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Letter 4

엄마, 나 시집가요

최정아 | 경기도 군포시 당동

저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여성시대 팬이라서 엄마랑 같이 여성시대를 들으며 자랐어요. 방학 때면 엄마가 이 시간쯤 항상 여성시대를 들으면서 걸레질을 하셨거든요. 엄마가 살아 계시다면 아직도 여성시대 팬이겠지요. 엄마는 10년 전,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점심식사 준비하다가 쓰러져 혼자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제가 11살 때쯤 이혼하셨어요. 저랑 동생은 아빠가 맡아 키우셨죠. 전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살았기에 엄마를 조금 미워하면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나갔어. 엄마는 우리가 보고 싶지도 않은가봐. 엄마 나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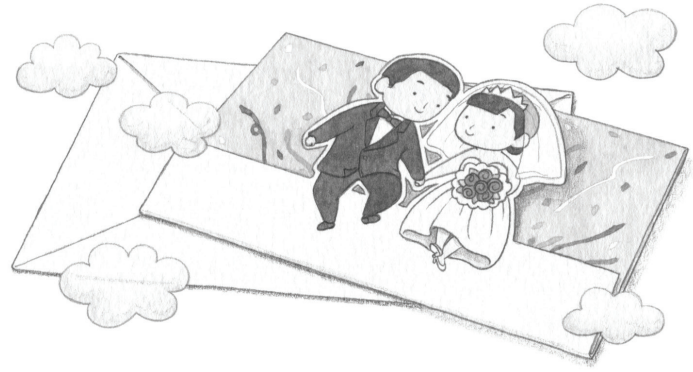
그러다 스무 살이 넘으니 조금씩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

요. '그래. 엄마한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겠지. 그래도 나를 낳아 준 사람은 엄마잖아. 미워하지 말자.' 엄마한테 맘을 열기로 할 때쯤 연락이 닿아서 엄마 집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전 키도 몸도 다 큰 20대 성인인데 엄마 눈에는 아직도 아기로 보였는지 "우리 아가~ 우리 아가~"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후가 제 생일이었는데 15년 만에 엄마가 생일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한 건어물로 만든 밑반찬과 호박전, 닭볶음탕, 아욱된장국… 15년 만에 먹는 엄마 밥이었지만 어제도 먹은 것처럼 입에 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연락 종종 할게. 동생 휴가 나오면 같이 올게." 이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전날 밤, 엄마한테 전화가 계속 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좀 이따가 해야지' 했던 게 영영 못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재혼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엄마랑 재혼하신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엄마가 1년에 세 번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일, 동생 생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엄마가 간혹 가다 우리 옷을 사 가지고 잠깐씩 집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사준 옷을 입으면 아빠한테 상처가 될까봐 입지도 않고 옷장에 그냥 넣어뒀었어요. 엄마는 평상시에 "우리 딸이 입으면 참 예쁘겠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사서 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아둔 옷을 가지고 잠깐씩 저희들을 만나러 오셨던 거죠. 그렇게 만나고 돌아오면 많이 힘들어했고, 애들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이해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딱 한 번 만났는데 엄마랑 영영 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엄마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꿈에 나오더라고



요. 엄마가 저를 말없이 가만히 쳐다보기에 "엄마, 왜 안 갔어? 왜 천국 안 갔어?" 말하니 한참을 바라보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미안해서… 너희한테 미안해서 못 가겠어…." "엄마, 괜찮아. 우리는 이제 다 컸고 잘 컸어. 우린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 편안히 가셔도 돼요." 그 후로 엄마는 꿈에도 안 나타났어요.

올해로 엄마 돌아가신 지 딱 10년이 되는데 제가 5월에 시집을 갑니다. 11살 때부터 아빠 밑에 커서 아빠가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다 하셨는데 장녀라 그런지 아빠 혼자 계실 생각하면 많이 걱정이 돼요. 아빠는 저한테는 내색을 안 하지만, 고모들한테 전화를 해서 "나이가 차서 언제 시집가나 걱정했는데, 기분이 이상하다.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시집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모들도 저한테 전화해서는 다들 우시더라고요. "네가 맘고생 많이 하고 자라서 고모 마음이 짠하다. 가서 잘살아. 아빠랑 동생 밥 해먹이느라 고생 많이 했다." 안 그래도 눈물 많은 편인데 아마 제 결혼식 때는 저도, 저희 가족들도 펑펑 울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사연이 있는 결혼식인가?' 싶을 거예요.

시집가기 전에 엄마한테 나 결혼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 산소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엄마 재혼하신 분 쪽 가족묘에 계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살아생전에 여성시대를 좋아하셨으니까 혹시 하늘나라에서도 듣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연을 올려 봅니다.

"엄마, 나 시집가요. 착하고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살림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애기 낳으면 산후조리 도와 줄 사람도 없지만 꿋꿋이 잘살게요. 엄마, 하늘나라에서 우리 사는 모습 흐뭇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행복하게 잘살게요.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아빠, 운전하면서 라디오 종종 듣는데 혹시 이 방송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춘기 때 우리 방황할까봐 재혼도 안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냉동 돈가스와 반찬가게에서 산 반찬들로 도시락을 싸주셨지요. 다른 집 엄마들 같으면 반찬들 섞이지 말라고 호일로 따로 따로 담았을 텐데 아빠는 그대로 싸서 매일 콩장이랑 돈가스가 섞여 색깔도 맛도 아주 이상하곤 했어요. 숟가락도 종종 안 넣고, 어떤 날은 밥 없이 반찬만 싸주고, 그래도 밥 위에 계란후라이 항상 올려 정성껏 도시락 싸주고, 운동회 때 우리 기 죽을까봐 고모들한테 '애들한테 김밥 싸서 가 달라'고 해서 외롭지 않게 해주고, 암 진단 받고 수술까지 했는데도 애 둘 키워야 한다며 제대로 쉬지도 않고 바로 출근하고, 아빠 생각하면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 많이 죄송스러워요. 이제 시집갈 때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동안이라도 딸 노릇 잘하고 갈게요. 혼자 있다고 대충 끼니 때우지 마시고 반찬 자주 갖다 드릴 테니까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사랑해요!"

여성시대를 열심히 듣고 있는 60대 애청자입니다. 작년 추석에 일본 도쿄에 사는 아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된다고 저 보고 손자를 일주일만 봐달라고 해서 일본에 갔었습니다.

손자는 2012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은행에 다니는데 1년 6개월의 육아 휴직을 해서 그동안 제가 손자 돌보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자가 돌이 지나고 며느리가 복직할 때가 다가와서 아들, 며느리는 여기저기 어린이집을 보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시골에는 어린이집이 남아돌고 도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찾기가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집근처 사립 어린이집은 시설이나 조건이 좋은 대신에 보육료가 너무 비싸서 보낼 수가 없고, 공립 어린이집은 점수에 따라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점수 매기는 기준은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저소득층 가정,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서 우선으로 갈 수 있게 하는데 보육비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낸다고 했습니다. 즉 소득이 적은 부모는 소득에 따라서 자녀의 보육비를 적게 내면서도 우선순위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반면에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보육비를 많이 내면서도 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녀도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내는 보육비는 제각각이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소득이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점수가 낮게 나와 순위에서 밀려서 집에서 가까운 비교적 시설이 좋은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걸어서 약 20분 거리의 시설이 조금 차이가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15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첫 주는 하루에 한 시간, 둘째 주는 하루에 두 시간 맡겨놓았다가 며느리가 복직을 하고 나서는 종일 맡겨놓았습니다. 아들은 공기업의 연구소에 다녀서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워 매일 손자를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은행에 다니니까 아침 8시에 출근을 하여 저녁 6시에 퇴근하니, 아들이 출장 가고 없으면 손자를 12시간이나 어린이집에 맡겨 놓아야 하니 저 보고 일주일만 와서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출장을 떠나기 전 금요일 아침,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갈아입을 옷, 수건, 물티슈, 일회용 비닐팩, 기저귀 등을 챙겨 저와 같이 손자를 데려다주러 갔습니다. 약 20분 걸어서 어린이집에 도착했는데 밖에서 본 어린이집 건물은 제가 한국에서 본 어린이집에 비해서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손자는 마루에 앉아서 신발을 벗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22개월 밖에 안 된 애가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애처로워서 제가 벗겨주려고 하자, 아들이 혼자 벗게 놔두라고 했습니다. 신발을 벗은 손자는 신을 들고 제 이름이 쓰인 동물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는 신발장에 올려놓고 복도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두살반이라고 쓰인 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혼자 양말을 벗어서 제 이름이 쓰인 스티커가 붙은 소쿠리에 넣는데, 글도 모르는 22개월 밖에 안 된 애가 제자리를 찾아 넣는 게 신기했습니다.

똑같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다른 소쿠리에 아들은 그날 손자가 갈아입을 옷과 기저귀, 물티슈, 일회용 팩을 담아 놓고 나머지는 같은 스티커가 붙은 사물함에 넣어 놓더군요. 혹시 모자라면 쓰도록 여유분을 넣어 놓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물함에 일회용 팩만 몇 장 뽑아서 넣어 놓는데, 그날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쉬를 하거나 응가를 한 기저귀를 일회용 팩에 담아놓으면 저녁에 손자 데리러 가서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문지에 싸서 비닐팩에 넣은 것은 응가한 기저귀고 그냥 넣어 놓은 것은 쉬한 기저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가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담아갔던 빈 가방은 복도 벽에 같은 스티커가 있는 곳에 거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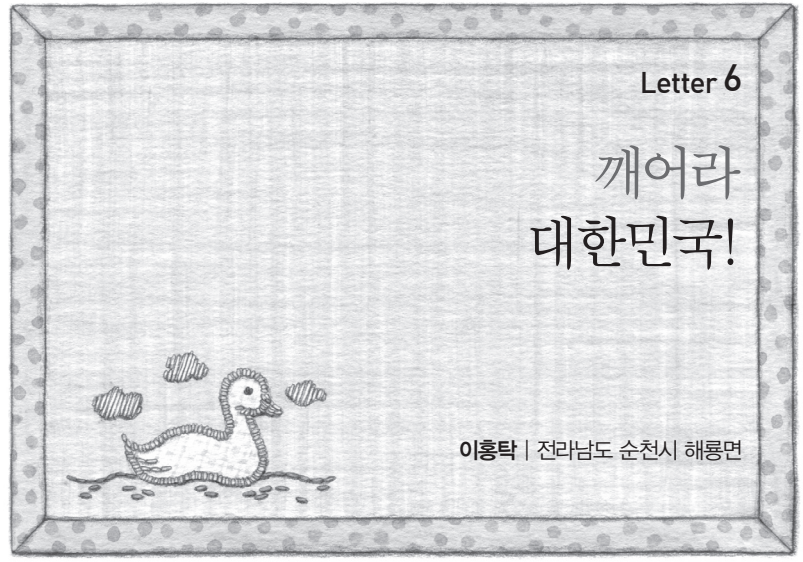
매주 금요일에는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깔고 덮은 이불과 운동화를 집에 가져와서 빨아서 월요일에 가져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살반에는 12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세 명의 교사와 시간제로 일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원래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정년퇴직하시고 제일 바쁜 낮 시간에 시간제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하시는 일은 어린이들이 쉬하고 응가하면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말로는 1살, 3살 반에도 할머니가 한 분씩 시간제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좋아보였습니다.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할머니들은 경험이 많으니 젊은 교사들이 배울 점도 많을 것이고 또 결혼 안한 젊은 교사들은 애들 기저귀 가는 것이 서툴고 힘들 테니 그걸 보안할 수도 있겠지요. 그 할머니들은 어린이들을 자신의 손자, 손녀처럼 알뜰히 잘 돌봐줄 수 있고, 또 시간제로 근무를 하니 어린이집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노인 일자리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가고 그 다음 한 주 동안 매일 아침 9시에 손자를 데려다주고 오후 3시 반에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어린이집 시설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일본이 나름 선진국인데 어린이집 시설이 너무 소박하여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한국에서도 저는 어린이집을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텔레비전을 통해 본 어린이집은 모두 고급스럽고 아기자기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최근에 전 국민을 경악케 한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사건의 배경인 그 어린이집도 텔레비전을 통해 볼 때 상당히 멋져 보였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애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까요? 또한 정성껏 어린이를 잘 돌본 교사들도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을까요? 부디 좋은 정책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텔레비전 채널에서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한창이다. 원인이 무엇이며, 왜 진화가 늦었는지 등등…. 뉴스를 보면 볼수록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프다.

불! 소방관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액 남기지 않고 진짜로 잘 끄고 싶지만 솔직히 주변 여건이 녹록치 않다. 골목골목에는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거대한 소방차는 접근조차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불도저마냥 모든 차를 뭉개버릴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소방차가 있다면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순간들이 몇 번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고 그게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 탓이겠는가! 우리나라 주택가 어느 한 곳이라도 편안하게 내 차를 놔둘 곳이 있는가? 주택에 사는 내 친구는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자기 집 앞인데도

주차할 수가 없어 빙빙 돌다 결국은 걸어서 20여 분 거리인 학교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온단다.

한탄과 한숨, 비판도 잠시, 소방서 스피커에서 전화 통화 내용이 들린다. 화들짝 놀라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다. 화재다.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와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119죠?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연기가 아래층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OO아파트 6층인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사상자가 100여 명이 넘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가슴을 쓸어내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아파트 화재 출동이다. 앰뷸런스에 승차하자마자 벌써부터 차량 무전기에선 난리법석이다. 심장 소리까지 내 귓가에서 맴돌 정도로 긴장감이 돈다. 제발~ 제발~ 별일 없기를 바랄뿐이다. 아니 별일이 있어도 온 몸을 바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려내야만 한다.

"전 대원은 공기호흡기를 신속히 착용하고 화재 진압에 임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인명구조!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다시 한번 말한다! 우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통상적이고 상투적인 말이지만, 오늘은 뼛속까지 전해온다. 멀지 않은 거리지만 주말 나들이 차량으로 인해 뻥 뚫린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우렁찬 사이렌 소리에 몇몇 차량들은 한쪽으로 비키고 서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들은 '설마 무슨 일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듯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대만 굳게 잡고 있다.

"시민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주행하는 차량은 가장자리로 비켜주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자, 머리에 경비라는 모자를 쓴 아저씨에 의해 가스는 차단되었고 아저씨가 가리키는 쪽 창문 틈새로 검은 연기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6층 604호다. 다른 소방차들은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나와 몇몇 대원들은 장비를 착용하고 휴대한 채 승강기에 탑승했다. 도착 즉시 옥내 소화전을 연결하고, 복도식 출입문 옆 창문짝을 뜯고 간신이 한 명의 구조대원이 진입에 성공했다. 거실과 주방 쪽은 검은 연기로 꽉 차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 솥단지는 검게 그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착용한 구급대원 방염 마스크도 소용없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았던가. 정말로 사골을 올려놓은 곰솥에 우리 모두의 가슴이 내려앉을 뻔했다.

어쨌든 다행이다. 창문 개방과 동시에 검은 연기들이 밖으로 빠져

나간다. 아마도 아래쪽에선 큰 불이 난 걸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곰솥을 올려놓고 외출한 게 아닌가 여겨진다.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현관을 나오는데 저기서 한 아주머니가 뛰어온다. 주인아줌마다. "죄송합니다. 깜박하고 가스레인지도 끄지 않고 모임에 갔네요." 머리를 긁적이신다. 어쩌겠는가. 큰 사고가 아니니 그리고 다친 사람이 없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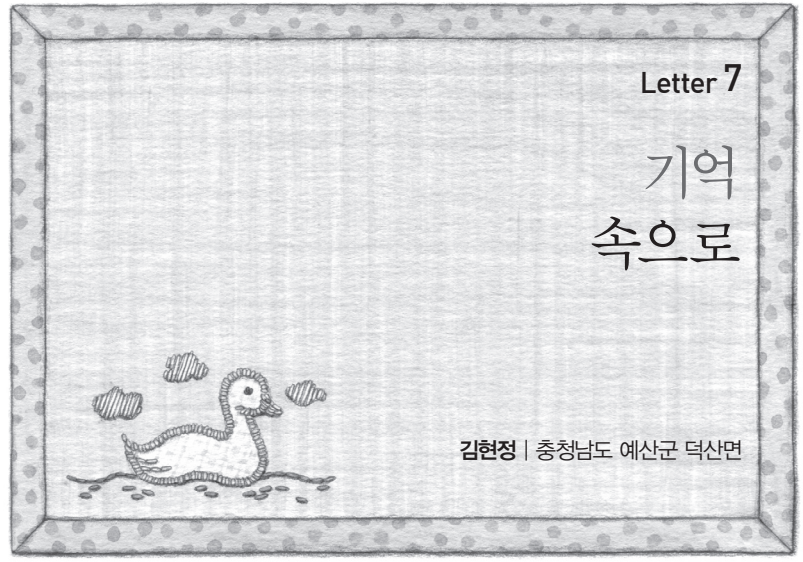
"그을림 때문에 싱크대 쪽이 완전히 오염이 된 것 같고, 한동안 냄새 때문에 환기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창문이라도 열어 놓았으면 빨리 신고가 되었을 텐데요."

주인아줌마는 다시 한번 숨을 몰아쉬며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이러다간 정말로 집 한 채 태워 버릴 것 같다며 울상이다.

나는 그저 이렇게만 말씀드렸다. "최근에 아파트에 큰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별히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길에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속이 쓰리고 아프다. 물론 이런 출동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음식물 탄화'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 대수롭지 않게 출동했던 적도 있었다.

겨울철에는 화재 취약 시기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치고 아픈 사람 또한 많아 출동이 많다. 몸과 맘이 힘들고 피곤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안전에 대해서는 마음에 여유를 둘 수는 없는 것 같다. 나태하고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마음을 다잡게 된다. 2015년에는 보다 안전하게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해본다.



우리 집에는 오래 된 벽시계가 하나 있다. 막내아들 낳던 해에 산 것이니까 45년쯤 됐나 보다. 시계에는 날짜와 요일, 시간을 알리는 땡땡 소리 나는 추가 매달려 있다. 식탁 옆 벽에 걸린 시계는 24시간 우리의 일상을 일깨워준다. 특히 남편은 아침 기상을 하면 꼭 시계를 쳐다본다. 날짜와 요일을 알기 위해서다.

남편이 날짜와 요일 개념을 잊어버린 지 일 년쯤 되었나 보다. 남편은 그뿐 아니라 어제 일, 아니 오전에 있었던 일도 오후에는 잊곤 한다.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남편 증세는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닌 것만 같았다. 남편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묘안을 생각해냈다. "여보, 우리 보건소로 혈압 약 타러 가요." 매월 받아오는 약이기에 별다른 표정 없이 남편은 현관

문을 나선다. 보건소장님은 혈압 약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소견을 말씀하시고 처방을 내려주신다. 처방전을 손에 들고 나오다가, 간호사에게 "우리 나이가 들었으니 치매 예방을 한 번 받아볼까요?" 했더니 간호사는 반갑게 "그럼요.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지요" 하며 친절히 안내해준다.

우리 부부는 책상에 앉아 몇 가지 문항에 답하고 그림도 그려 보게 되었다. 나는 차근히 대답해 만점을 받았는데, 남편은 과반수를 오답을 말해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마음속으로 긴장하면서 어설픈 미소로 눈인사를 했다. 남편은 표정 변화 없이 담담히 웃으면서 "어이구, 기억력이 이렇게 나빠졌나" 혼잣말처럼 되뇐다. 보건소에서 소견서로 준 메모지를 갖고 소재지 의료원으로 갔다. 피검사부터 MRI, 상담 등 여러 가지 진료를 끝내고 집에 가서 기다리란다.

며칠 동안 나는 초조함을 억제해 보려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들으며 애써 명랑한 척했지만, 그것은 생각뿐이었다. 살아 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들이 적은 70대 중반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다 아름답게 간직하고 싶었고, 이제까지 지켜 온 평화와 안락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편지함에 낯선 봉투가 꽂혀 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들고 와 책갈피에 묻어 두었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잠자리에 든 남편을 확인하고서 가만히 봉투를 꺼내 진료내역을 읽어 보았다. '알츠하이머. 항 치매약 복용 요함.'

두 눈을 꼭 감고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가슴의 진동만 스스로 느꼈다. 조용히 남편 곁에 누웠다. 아무 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자는 옆얼굴을 보니 왈칵 눈물이 나, 옆으로 돌아누워 버렸다. 아침에 일어나 또 시계를 본다.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날짜와 요일을 확인한다.

특별히 불행하게 살아 온 것도 아닌데, 왠지 허망하고 쓸쓸하다. 지금 내게서 '아내, 엄마, 할머니'라는 이름을 빼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남편이 된 후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인간적인 허기와 공허들이 가득했던 젊은 날의 한때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 얼굴에서 나의 모습을 읽었고 남편의 어깨가 내 살아온 삶의 무게였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내 가족의 추억에서 소중한 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의 기억에 지나지 않음을 새삼 깨달았다.

나는 두 아들에게 조용히 알렸다.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 여전히 남편은 어떤 생각, 사고의 능력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고 책 읽기를 좋아하던 모습도, 술 담배 대신 커피를 너무 사랑하며 음미하던 모습도, 여행을 좋아하던 마니아의 열정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우리는 사는 이유에 책임이 더 많이 섞이는 나이가 됐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상을 잃고 평온한 삶에서 도전을 잃을 때 뇌 속 전두엽이 오그라들고, 의욕이 상실될 때 우울증이 온다고 한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치약은 없다고 하니, 가족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다.

남편은 항상 정체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떤 괴로움도 안타까움도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채우고 있는 듯싶다. 비록 기억이 점점 사라져, 남편 눈에 내가 아내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남편의 가슴에는 내가 영원히 있음을 확신하며 세상 다할 때까지 나는 남편의 지팡이가 되리라.

Letter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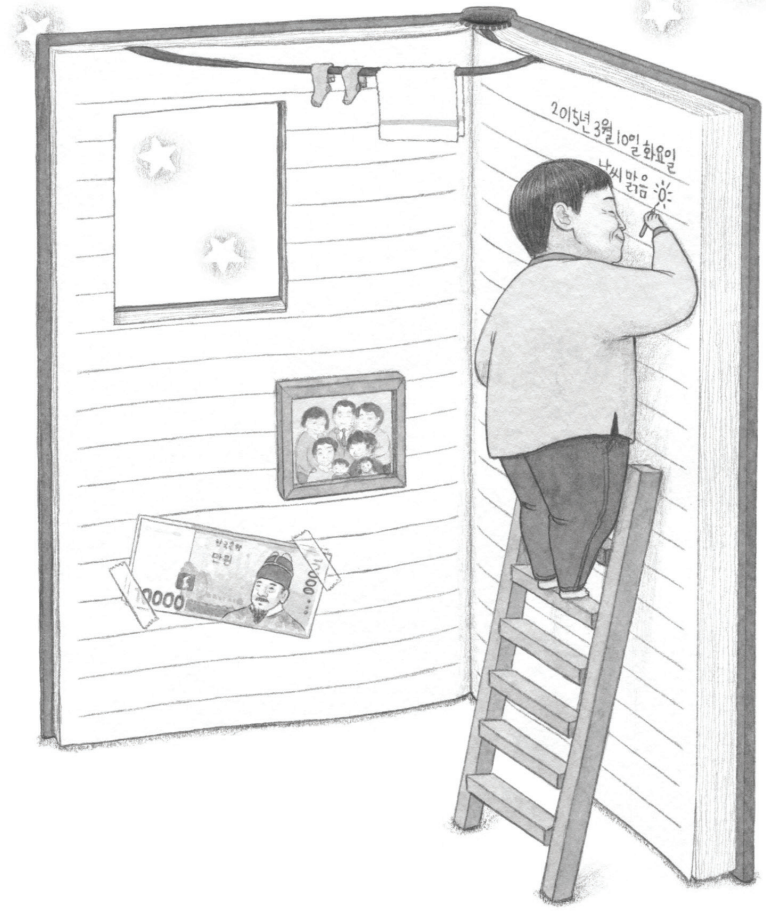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이성익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저는 내일 모레가 칠십인, 늙은 소규모 건설업자입니다. 남들이 이제 그만 쉬라고들 하지만 남에게 말 못할 짐이 있어서 아직도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강원도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 걱정이 앞섰지만 공사를 달라고 하기보다 주는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기가 훨씬 어려운 게 우리네 업계의 관행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 이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겨울이라도 피해야만 할 조건이 몇 있는데 이건 골고루 갖췄더군요. 우선 한겨울 이 시점에, 공사 장소가 춘천 밑에 홍천이고 북향 받이에 강줄기 옆 자락이고 보니 바람막이 하나 없어 강바람이 거칠 것 없이 지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만약 여름이었다면, 시쳇말로 끝내주는 환경이었겠지요.

하지만 일단 발을 담그면 물러설 수도 없는 게 우리 건설업자들의



숙명입니다. 우선 여관방을 따뜻한 곳으로 골라잡고 갈탄난로도 준비하고 서둘러 아침 일찍 먹고 현장에 나가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덮어놓지 않은 자재에는 서릿발이 흡사 고슴도치의 등처럼 촘촘하고 금세 손가락이 저리도록 시리니, 다들 난로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내 눈치만 봅니다. 털모자에, 목도리에, 옷을 타이어 광고처럼 껴입었어도 칼바람은 피할 수가 없답니다.

얼굴에 바늘이라도 쏟아지는 듯 따끔거리는데 일하라고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같이 둘러서서 이야기 조금하다가 일 잠깐하고 또 불 쬐고, 이 과정의 반복입니다. 바람만 안 불면 이까짓 추위 견딜만한데 그 놈의 바람 때문에 말이죠.

오전을 어영부영하고 점심 먹고 나니 아무래도 날씨가 좀 낫고 오전에 부진했던 게 미안하기도 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노루 꼬리 같다는 겨울 해가 금방 넘어가는데, 북향받이다 보니 1시간은 더 빨리 해가 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획했던 공정의 절반 남짓 했지만 잔손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잠깐하다 불 쬐고 하다보면 깜빡하고 지나치는 공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추위에 만사가 귀찮으니 알고도 대충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럼 그것 고치느라 또 시간이 가지요.

길고 긴 하루가 가면 절로 한숨이 나오는 퇴근길에 오릅니다. 차 밖을 보니 시내 강가에 불야성을 이루고 사람들이 울긋불긋 많이도 모였습니다. 커다란 글씨로 '홍천강 꽁꽁축제'라고 써놓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추위를 즐기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그러려니 하지만 축제 이름이 하필 '꽁꽁축제'라니…. '나는 한줌 햇볕이 아쉬운데 더 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구나.' 이 추위에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을 보니 기분이 좀 묘하네요. '그래, 일하는 사람 있으면 즐기는 사람도 있어야지.'

더운 물에 샤워하고 빨래도 대충 해 널고 식당에서도 제일 따뜻한 곳으로 골라잡고 푸짐한 저녁 밥상에 소주가 빠질 수 없습니다. 입술 주위가 허옇게 갈라진 자국들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뜨끈한 국물에 알싸한 소주 몇 잔 넘어가면 패잔병같이 난롯가나 기웃거리던 초라함은 어디 가고 특유의 무용담이 밤새라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창밖에선 눈보라가 귀신 울음을 내며 밤새 말 달려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쯤은 생각지도 않는 눈치들입니다.

모두들 가족친지에게서 추위에 몸조심하라는 전화들을 주고받고 이내 코를 드르렁거립니다. 나만 혼자 잠 못 이루고 내일 할 일들, 까마득히 쌓여있는 일거리들에 대한 걱정,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나이에 대한 두려움, 작년 같지 않은 건강 등등으로 뒤척거립니다. 젊은 날 수없이 지나쳐버린 그 많던 기회들을 못 살리고 이제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되다니, 내일은 눈 치우다 보면 한나절 금방 흘러갈 테고, 젖는 손은 또 어찌할꼬, 언 땅을 뒤집어 놓고 그걸 메워봐야 봄이 되면 몽땅 주저앉을 텐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 공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래, 오늘도 사고 없이 하루가 갔잖아! 일꾼들도 모두가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현장 분위기도 괜찮고, 발주처에서 돈도 잘 주고, 그리고 이 나이에 이렇게 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이 세상에 없어진 친구가 몇이고, 있어봤자 고롱고롱하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친구들도 있잖아! 남의 마누라들은 끝도 없이 바가지나 긁어대고 남편 구박이나 하는 눈치던데 어쩌다 집에 가면 뭐라도 못 먹여서 안달인 푼수 같은 아내도 있고 우리 손자 손녀는 왜 그리도 예쁜 거야! 별로 이룬 것도 없이 앞만 보고 내달려온 내 인생이 가엾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쭈구렁텅이는 아니었잖아! 그래,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거야.'

저에겐 버리고 싶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올해 제가 38살이니 아버지와 38년째 살고 있네요. 40여 년 전 아버지는 월남전에서 무사히 돌아오신 후 친척분의 소개로 엄마와 결혼을 하여 절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폭력을 이겨내지 못한 엄마는 젖도 안 뗀 백일도 안 된 저를 두고 집을 나가셨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홀로 절 키우셨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저를 예뻐하셨고 젖동냥까지 해가며 절 키워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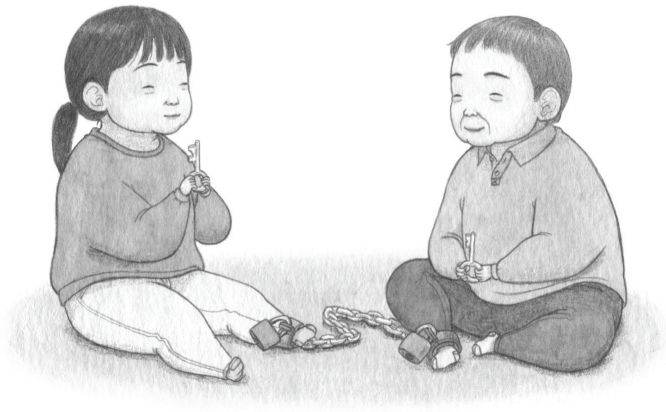
하지만 엄마가 없어서인지, 가난 때문인지, 월남전의 후유증 때문인지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기 시작했고, 제가 7살 무렵부터는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며 절 돌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2평짜리 단칸방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 친구들이 와서 도박판을 벌여 전 밤늦게까지 갈 곳이 없어 집 앞에서 쪼그리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이유도 없이 때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싸움이나 파출소에 잡혀가는 날이면 울며불며 파출소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기라도 하면 아버진 한번만 더 엄마 얘기 꺼내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혼을 내셨습니다. 덕분에 전 엄마를 절대 찾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술 마시고 들어오신 아버지가 수제비를 끓여 달라기에 고사리 손으로 수제비를 끓여 드리니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왔냐며 솥을 던져 버리는 바람에 울면서 치우던 일도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집안형편은 나아지질 않아 2평짜리 방 하나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는데 시험기간에 밤늦게 불 켜놓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눈이 부셔서 잠도 못 자겠다고 하며 불 끄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책 들고 골목 가로등 밑에서 공부를 하며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는데 아마도 그때가 제일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모두 나빴던 건 아니었습니다. 건설 노동일을 하시면서 학비는 빠짐없이 내주셨고 술을 드시긴 했지만 절 키워주셨습니다. 그래도 고아원에 가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망가져 갔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어린 시절이 지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부터 아버지는 아예 일을 하지 않으셨고 전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생활비와 아버지 용돈까지 벌었습니다. 전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 회사에 취직해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매일 같이 술만 마시고 결국엔 위암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위암은 초기여서 다행이었지만 그 후로도 매일 술만 마시다 알코올성 치매까지 왔습니다. 친척분들은 저에



게 효녀라며 기특해 하셨지만 그 꼬리표에 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제 앞에서 자살을 한다며 쥐약을 두 번이나 드셨습니다. 어린 맘에도 아버지가 죽는 게 두려워 온몸으로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전 아버지 때문에 결혼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야겠다고 맘먹고 서른 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남편이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산다기에 앞뒤 가릴 것도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33살 때네요.

딸이 결혼을 하면 아버지도 좀 정신을 차리시고 아버지 노릇을 해주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너무나 힘든 가시밭길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장인에게 점점 싫증을 느낀 남편은 절 미워하기 시작했고, 행복해야할 신혼은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알코올전문병원에 보내라고 하고 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남편과 싸우고 이혼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야속하게도 딸이 당신 때문에 힘들게 지내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는 계속 미운 짓만 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쯤 이 사람과 평생 살 운명인지 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만삭이 될 때까지도 매일 술 마시고 속을 썩이셨고 결국 전 아버지를 알코올전문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1년 후 아버지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 집으로 모셔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며 남편과 재미나게 살고 싶지만 혼자서는 뭐든지 하지 않으려 하고 아니 하지 못하고, 어린애 마냥 삼시세끼 차려드리지 않으면 식사도 안 하시고 밖에도 안 나가고 방에서 365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죄로 남편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고 애가 아파 며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조차도 집에 와서 아버지를 챙겨야 하니 이젠 정말 아버지가 밉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친구들은 결혼해서 다들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난 저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 절망스럽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 날개 달고 훨훨 날아 보라고.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눈 떠 아버지를 보는 것도 이젠 싫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곁을 떠나 혼자서는 못삽니다. 그랬다가는 또다시 술만 마시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나도 좀 행복하게 살게 나 좀 놔줘요" 하고 못된 소리도 했습니다. 정말 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마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버지도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그보다 이젠 어린애가 돼버린 아버지가 불쌍해서요. 제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엄마는 절 버렸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절 버리진 않았으니까요. 제겐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Letter 10

미처 하지 못한 감사 인사

송관영 |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앙동

우리 동네는 인천에서 오래된 집들이 많은 재개발지역입니다. 집집마다 노인들이 많고, 경제인구도 많지 않아 상당히 낙후되어 지역에 미장원이라든가 술집이 생기더라도 채 2년도 안 되어 다른 가게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비어 있기 일쑤입니다.

저는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는 빈집들이 거의 없었고 노인 분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그 와중에 알던 아랫집 노인 내외는 집을 팔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앞집 노인 내외는 몇 년 전에 두 분이 1년 간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상 문제로 부랴부랴 이곳으로 이사를 왔고, 서울 관악구에 있는 가게로 15년째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집사람도 같이 출퇴근하다 보니 낮에는 집이 거의 비어 있기 일쑤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다보니 동네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는 근처에 구멍가게도 여섯 군데 정도 있었고, 책대여점이나 비디오가게, 목욕탕도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 다 사라지고 딸랑 구멍가게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구멍가게의 이름은 H슈퍼. 주인아저씨는 여느 슈퍼 주인처럼 딱 보아도 맘씨 좋게 생기셨고 아주머니 역시 그러했습니다. 가게 문을 일 년 삼백육십오일 아침 6시에 열고 밤 12시경에 닫는 그런 슈퍼입니다. 저는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번 대형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사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H슈퍼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동네에 있던 약국도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폐업해서 없어져서 약을 사려면 좀 떨어진 곳의 오래된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늦은 밤에 감기약이나 소화제가 필요하면 약국이 문을 일찍 닫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H슈퍼에는 쌍화탕이나 소화제 같은 드링크류의 상비약이 있어서, 간편하게 살 수 있는 참 고마운 곳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주인 아저씨나 아주머니는 저를 보면 항상 "출근하세요?" "지금 퇴근하세요?" "한잔하고 늦게 들어가시나 봐요?" 먼저 아는 체를 해주십니다. 집에 사람이 없다보니 가끔 택배 물건이 오거나 하면 전화를 해서 "죄송하지만 집에 택배 물건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받아주시면 안될까요? 저녁 때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세요"라고 싫은 표정 없이 받아 주시곤 합니다.

최근에도 고등학교 동창이 귀농해서 사과 과수원을 하기에 사과를 두 박스 주문해서 받으려하니 마땅히 받을 곳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또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역시나 맘씨 좋은 아저씨는 쾌히 받아주셨고 내가 퇴근하기 전에 집사람과 장모님이 물건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이나 지났을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하고 밤늦게 퇴근을 하는데 슈퍼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11시가 살짝 넘은 시간인데 문이 닫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웬일일까? 아직 문이 닫힐 시간이 아닌데.' 그리곤 무심코 지나쳐서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슈퍼 문은 열려 있지가 않았습니다. 닫힌 문을 쳐다보니 문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문 앞으로 가서 보니 그 종이에는 '喪中(상중)'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열흘 가까이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슈퍼 사장님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신 모양이네. 지방으로 가셔서 아직 안 올라 오셨나보네.'

열흘 가까이 지난 어느 날 출근하려고 슈퍼 앞을 지나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근해 집에 와 저녁을 먹으면서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H슈퍼 오다보니 문 열었더라" 하고 말했더니 집사람은 "H슈퍼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데" 하는 겁니다.

"왜?"

"글쎄 그건 모르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평소 병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던데, 안 그래?"

"그러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연세도 아닌데 말이야."

"그러게."

열흘이 지난 후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출퇴근 때 얼핏 보니 아들로 보이는 청년이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 문득 무언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빼먹은 듯한 느낌. 고개를 갸우뚱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에이, 나중에 생각이 나겠지' 그렇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은 무언가 놓친 듯한 것은 바로 '택배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들르게 되면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만 영영 감사의 인사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인사하지, 나중에 찾아뵙지, 나중에 사드리지, 나중에 드리지, 나중에… 나중에…. 불효하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듯이 감사의 인사도 때를 놓치니 하지 못하고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항상 고마웠습니다. 택배 받아주신 것도 고맙고, 어두운 밤길에 사시사철 불을 밝혀놓아서 집사람과 딸들이 맘 편하게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다른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없는 그런 물품을 구비해 놓아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위에 약국이 없어서 쌍화탕이나 마시는 소화제 등 상비약을 구비해 놓아 불편함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맘속으로 빕니다."

Letter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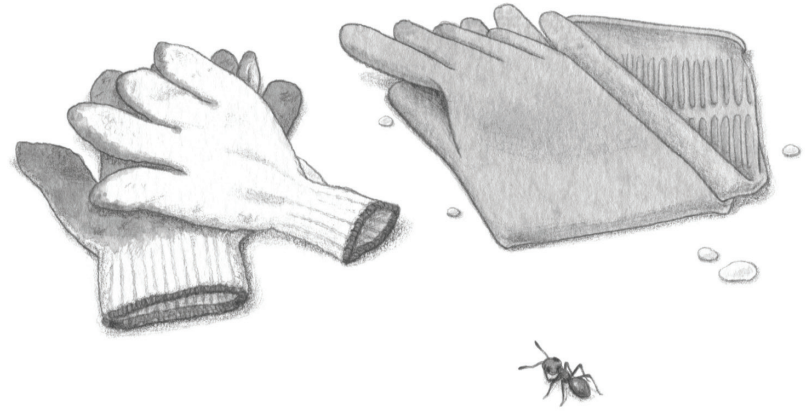
아버지의 은퇴 밀당

양돈규 |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나이 55세, 전직 역도선수, 새벽별 보며 공사현장에 나가는 걸 천직으로 아는 남자, 선천적 낭만 불감증이지만 마음 하나는 장작불 같은 은은한 남자.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평생을 일만 알고 사시는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한사코 일을 못하게 말리십니다. 어릴 적부터 물 한 모금도 물지게로 길어다 먹었다는 아버지는 평생 육체적 일을 쉬지 않고 하셔서인지 언젠가부터 어깨가 심하게 아프고, 팔을 등 뒤로 돌리지도 못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어깨회전근개 인대파열이라며 당장 수술을 권유했지만 아버지는 수술도 마다하고 일을 다니셨어요. 돈도 돈이지만 아버지는 공사현장에서 연장 들고 뚝딱뚝딱 집 짓고, 창고도 짓는, 일 그 자체가 좋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인부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그들에게 지시하기보다는 자



신이 몸소 나서서 일을 해, 웬만한 작업복은 일회용으로 쓸 정도로 옷이 금세 뚫어지고 찢기곤 했지요. 더 큰 문제는 아버지 몸에도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한번은 파이프가 쓰러져 아버지 머리를 덮쳐서 피가 났는데도 아버지는 병원에 가서 몇 바늘 꿰매고는 다시 현장에 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트럭에 짐을 쌓다가 반대편에서 팽팽한 밧줄을 잡고 있던 사람이 줄을 놓치는 바람에 한쪽 눈이 실명되기도 했어요. 실명은 평행감각 불균형을 초래해 공사현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이었죠.

아버지가 공사를 맡아오면 어머니는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예술을 하시던 분이라 감상적이고, 은행에서 돈도 인출할 줄 모르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을 계속 하다간 큰 일 나겠다 싶어 과감히 예술 활동을 접고 밤낮 없이 재테크 공부에 올인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은 아버지가 일을 쉰다 하더라도

그럭저럭 밥 걱정은 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부이자 어릴 적 소꿉친구였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 그동안 가족 위해 고생 할 만큼 했어. 이제 집안 경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 당신은 당분간 휴식을 취해. 한 2년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면서 노후를 위해 제2의 소일거리를 같이 찾아보자고. 특수작물을 재배해 보든지, 슬슬 산에 다니며 심마니가 되든지 아무튼 지금처럼 공사현장에 나가 힘쓰는 일은 무리야. 어깨도 눈도 안 좋은데 괜히 일 더하다가 몸을 완전히 망치기라도 하면 앞으로 긴긴 노후를 고통 속에서 지낼 수도 있잖아. 건강이 웬만해야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달래는 과정에서 때때로 커다란 말다툼이 벌이지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일을 완전히 놓는다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하신 듯했어요. "알았어. 서서히 일도 줄이고 연장도 정리하고, 트럭도 팔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평생 노동이 몸에 젖은 아버지는 어느새 현장에 나가곤 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연장과 트럭을 쉽게 떨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날 때마다 이런저런 최후의 통첩을 날리곤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해! 당신이 일을 그만 두지 않으면 난 2년간 외국에 나가 공부할 테니 그렇게 알아." 사실 어머니는 고집 한번 피우시면 태산처럼 꿈쩍도 않는 분이기에, 부모님 사이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그렇게 완강히 은퇴를 주저하던 아버지에게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지요. 지난여름,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정강이 인대와 발목인대가 파열되고, 발뒤꿈치 뼈가 조각나는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119에 실려가 수술을 받고, 아버지는 그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칼잠을 자며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냈고, 머리를 감겨주며 온갖 수발을 다 드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당신이 다치기 이전 시간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고 안타까워하셨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셔야 했고, 아들인 저는 두 달 간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다 취업 준비를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돌보는 이는 오롯이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연장과 트럭을 처분하지는 않으셨지만 살림살이 하시느라 어쩔 수없이 공사판 대신 주방에서 프라이팬을 달구며 여자들의 로망인 '요리하는 남자'로 전향하셨죠. 제가 어머니 수발을 들며 가장 힘들었던 건 요리였어요. 청소와 빨래는 청소기와 세탁기가 알아서 해준다지만, 요리라는 건 연차 높으신 주부님들에게도 부담스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명령만 하면 아버지는 뭐든지 척척 요리를 만들어 내셨어요. 청국장, 잔치국수, 고등어구이, 팬케이크, 샌드위치 등등…. 얼마 전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살림도 재미가 있구나"라고요. 요즘 아버지는 집안에 갇혀 지내시다 큰 마트로 장 보러 가시는 게 생활이 되셨답니다. 마트에서 날마다 보내는 '오늘의 세일식품' 문자를 눈여겨보다가 트럭을 끌고 장을 보러 가시는 게 일상이자 낙이라고 하시네요.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이별도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어쩌면 아버지는 평생 하시던 일과 연장 그리고 트럭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이렇게라도 달래며, 마음속으로 인생 1막 1장의 은퇴를 서서히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닐는지요. 부디 아버지가 아름다운 은퇴를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제2의 삶을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숨죽이며 한 줄 쓰고 눈물 닦고, 그렇게 하얀 밤을 지샜습니다. 이제 겨우 지천명의 고개에 들어섰는데 한 집안의 남편으로 아빠로 가장의 직분을 생각하니 고추보다 더 매운 것이 인생이라고 새삼 느낍니다.

지난 해 12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정해진 이후 잠보라고 말하는 아내는 거의 매일 새벽녘 뒤척거림이 많아졌습니다. 잠을 깨는 순간 살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 시댁과 남편에 대한 원망과 회한들이 등골을 적신다고 합니다. 아내는 울먹입니다.

"그래, 결혼 26년 동안 좋은 옷을 한 벌 사 입어봤나? 명품백을 들어봤나? 그 흔하게 가는 외국여행 한 번 가 봤나?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야. 당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많은 부채를 숨기고 돌려막기 하느라 천근만근을 지고 있었을 상황을 생각하니 한편으론 측은하기도 하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1월 6일, 소한의 추위는 매웠습니다. 그날 오후 2시까지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피해야 할 곳이 병원 수술실, 경찰서 유치장, 법원 문턱이라는데 그 중 한 곳을 가야 한다는 죄인의 마음으로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명색이 교사인데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면죄부를 쥐러 가는 모양새가 너무 미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소송 법정 개정시간이 다가오자 대기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푸석한 얼굴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인회생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드디어 회생 담당 판사님이 들어오고, 출석 확인 후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주어지는 마지막 삶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변제계획 이행을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점심도 안 먹었지만 무엇을 먹고 싶다는 의욕도 없이 정수기 생수만 대여섯 컵 마시고 다시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황량한 겨울 들녘이 지금의 내 마음보다 덜 황량해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시간 내내 아내는 문자메시지로 진행상황을 물어보았지만 〈괜찮아. 다 잘됐어〉라는 말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 올해 2월까지 변제계획안대로 회생담당위원에게 2,130만 원을 입금해야 변제계획인가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넣지 못하면 사건은 기각되고 채권자의 가압류와 경매가 들어올 것을 생각하니 산다는 의미가 묘연해졌습니다.

제가 억 단위의 빚을 진 것은 물론 저의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형제

들이 나 몰라라 하는 부모님을 모시느라 생긴 빚이기도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거처할 집을 장만하고 병원비와 수술비, 나중에는 요양병원에 모시느라 든 돈입니다. 처음에 조금씩 얻어 쓴 빚이 정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건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 세수를 하고 방문을 여는데 "당신도 불쌍하고 내도 불쌍하다. 지금까지 혼자 돈에 얽매여 헉헉대며 동동 구르며 결혼생활을 해온 것도 그렇고, 지금 내 형편도 그렇다. 우리 정말 불쌍하제?" 아내가 울면서 말을 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당신과 나에게는 서로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겠지만 열심히 헤쳐 나가보자."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정말 당신 믿어도 돼?" 다그칩니다.

인생이 1막 2장이라면 지금 저는 1막이 끝나고 막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꼬박꼬박 갚아야 합니다. 이 5년이란 막간을 얼마나 잘 버티느냐에 따라 새로운 2장을 열 수 있는데 젊음은 기다려 주지 않고 저 멀리 달려가고, 몸도 마음도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아내는 갱년기까지 겹쳐 우울증과 자기 달구기가 너무 심하여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섶을 지고 불 속에 들어서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힘이 되는 것이 가족인데 제게 있어 가족의 의미는 극과 극입니다.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받은 것이 대학교 나온 것 뿐,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아버지는 제가 고2 때 모두 형 앞으로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남보다 못한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몇 년 전에는 큰누나가 교사로서 인성이 없다고 저를 자르라고 교장실에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우애마저 만들어주지 못하고 제게 빚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 긴 부모님 부양을 나 몰라라 합니다. 공부시켜 줬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합니다.

채권자 집회를 다녀온 후 며칠간 어둠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고 있는 순간 아내는 "이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고 더는 없다" 하며 큰아이 몫으로 넣은 보험만기금과 장모님이 앓아눕기 전 둘째 아이 대학등록금 하라며 시장 좌판에서 장사하여 몰래몰래 준 돈을 모아놓았다며 내밀었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죽는 것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자책감이 소용돌이로 휘말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위기를 극복한다 하여도 매달 돌아오는 변제금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쩌면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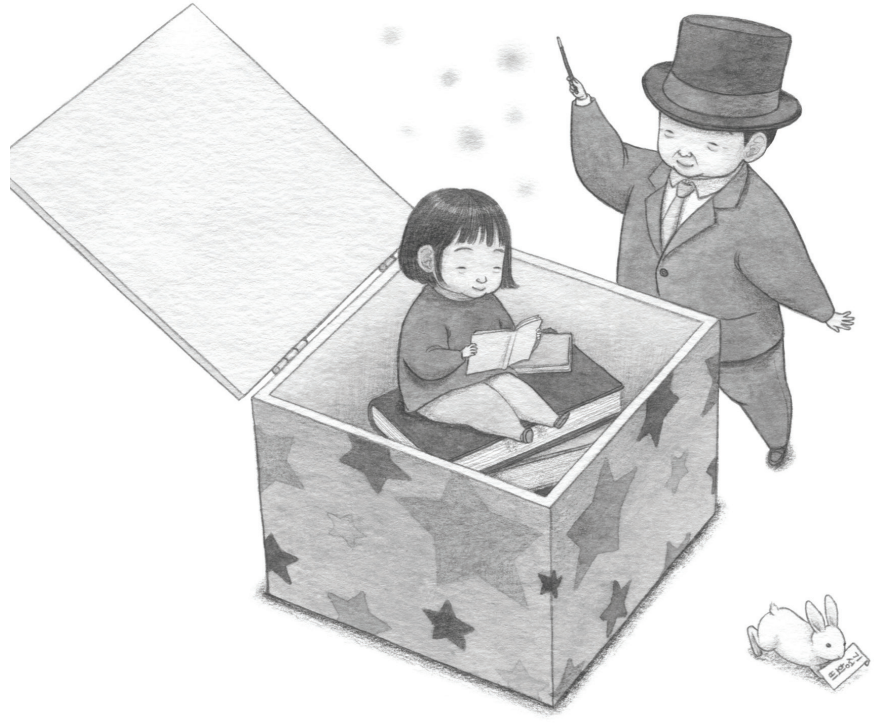
아직 중학교 다니는 둘째와 대학교 4학년이 되는 큰아이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마운 것은 처남들입니다. 쌀이며 젓갈, 김장도 보내주는 것을 보면서 진정 가족이란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입니다.

밤새 마지막이라 쓴 유서를 다시 읽어보니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목숨조차 함부로 할 자격도 없다. 책임 회피하려는 그 마음도 사치다"라는 아내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듭니다. 아침 해안길을 따라 삼십 분 가까이 달리는 출근길, 겨울 시린 바다를 보며 울컥울컥 밀고 올라오는 설움과 원망을 자신에게 쏘아 보냈습니다. 이래도 살아있는 것인가? 숨 쉰다고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질긴 게 목숨이구나 하는 자문을 하며 그래도 스스로를 추스르고 있습니다. 제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희망의 햇살이 환하게 들 날이 있을까요?

Letter 13

그리운 선생님

김지현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현재 무상교육과 급식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교육부에 문의를 하였더니, 무상교육은 중학교까지는 전면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 혹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달라 일괄적인 현황 설명을 하기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이 현황을 문의한 이유는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가슴에 고이 새겨둔 고마운 선생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너무 늦었지만 그분에 관한 감사의 글을 쓰려다 보니 문득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하였던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그 당시에는 다달이 학교에 내야 하는 기성회비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이 4학년 때부터는 육성회비로 바뀌면서 대폭적으로 금액이 많이 내려갔고, 형제자매가 한 학교에 함께 다니면 감면이나 면제 등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나는 홀쩍거리는 콧물이 마를 날이 없을 즈음,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 손에 이끌려 학교에 입학하였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늘 '기성회비'라는 악마는 어린 가슴을 짓누르는 커다란 돌덩이가 되어 등교하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언젠가 낡은 진열장 속에 있는 앨범을 꺼내 추억을 뒤적이다 우연히 초등학교 성적통지표를 보게 되었는데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매년 결석일수가 한 달을 훌쩍 넘었다. 방학을 제외한다면 평균 1주일에 한

번 꼴은 등교를 못했으니 이 모든 것은 기성회비 때문이었던 것이다. 등교를 한들 밀린 기성회비를 가져오라고 담임선생님이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니 열에 여덟 번은 그래서고 나머지는 시쳇말로 땡땡이를 친 것이다. 계속되는 선생님의 재촉과 성화에 에둘러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 날짜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면서 나는 부모님을 조르며 생떼를 썼지만, 부모님께서는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셨고 화가 나시면 오히려 학교에 가지 말라며 책보따리를 감춰버리셨다.

이렇게 나처럼 형편이 어려워 기성회비를 제때 낼 수 없는 급우들이 더러 있었다. 이런 골수분자들은 따로 분류되어 마지막에는 교장실에 불려갔었다. 두어 달에 한번 꼴은 교장선생님과 직접 대면하여 확실한 납부 일자를 약속하고서야 하교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 약속이란 것이 담임선생님과의 약속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교장실에 불려간 소위 블랙리스트에 오른 요주의 대상자들은 늘 그 애가 그 애라 몇 달 지나니 자연히 얼굴을 훤히 알게 되었다. 그렇게 교장실에 불려가는 날은 이미 소금에 절인 배추마냥 우리 모두가 주눅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비록 어린 나이라 하여도 본능적으로 눈치는 누구보다 빨랐던 것 같았다. 교장선생님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 쭈뼛쭈뼛 대며 서서 기다리기보다는 시키지도 않은 청소를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스물 후반 정도의 여선생님이셨다. 그리 예쁜 모습은 아니셨던 것 같았고, 무척 엄하셨던 분으로 기억된다. 기성회비를 제때 갖고 오지 않으면 몹시 다그치시거나 때로는 부모님을 모셔 오라고 했고 수시로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여름방학을 얼마 앞둔 어느 날이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기성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과 옆 반 여자 선생님이 복도에서 뭐라고 언성을 높이더니 느닷없이 육탄전에 돌입을 하였다. 선생님들 간의 싸움을 보는 것도 처음이지만 여 선생 두 분이 머리끄덩이를 잡고 욕설을 하며 뒹구는 모습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충격적이었다.

어찌 할 바를 몰라 어린 우리들은 다소 겁에 질린 채로 보고만 있었다. 그저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데 그 가운데 판단이 조숙한 누군가가 교무실에 뛰어가 알렸고 조금 후 급히 뛰어온 몇몇 남자 선생님들이 말리고서야 일단 싸움은 종료되었다. 청소하다가 괜히 옆에서 구경꾼으로 몰린 우리들은 남자 선생님으로부터 혼찌검을 당했고 우리에게는 함구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며칠 지나지 않아 소리소문 없이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여 선생님끼리 싸운 이유는 모 총각 선생님을 두고 삼각관계로 벌어진 싸움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으로 2학기가 개학하면서 담임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셨고 임시로 교감선생님이 담임을 맡게 되었다. 50대 초반의 그리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적당한 키에 반백의 짧은 머리카락으로 입가에는 늘 잔잔한 웃음을 띤 인자했던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하지만 담임이 교감선생님으로 바뀌었을 뿐 1학기 여선생님보다 성화의 정도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기성회비에 대한 독촉은 별다를 것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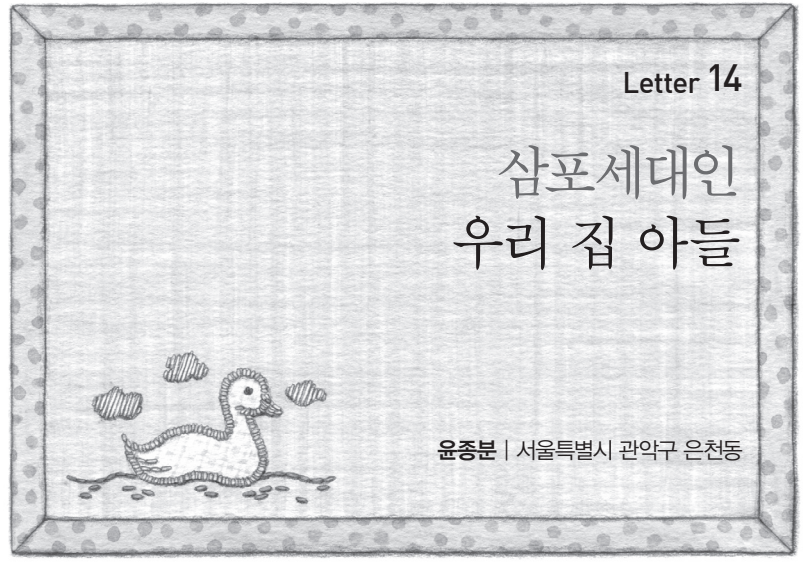
전처럼 그냥 하루하루만을 버티며 지나던 어느 날이었다. 학교에 가려다 무심코 닭장 옆을 지나다 보니 둥우리에 계란 몇 개를 낳은 것이 보였다.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부모님 몰래 계란 2개를 주머니에 넣어 학교로 향했다. 주머니에 있

는 계란이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급우들이 있는 교실에서는 창피하여 교실 밖에서 선생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다. 얼마를 기다렸을까 교실이 있는 건물로 걸어오는 교감선생님을 보고 달려가서 겨우 기어 나오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선생님 저희 집에 이것 밖에 없는데 학교를 계속 다니면 안 돼요?" 하고는 주머니 속에 고이 넣어둔 계란 두 개를 내어 선생님께 보여드렸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제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말씀도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그냥 넣고 집에 가져 가거라"라고 짧게 말씀하시고는 교실로 향하시는 것이었다. 서둘러 계란을 주머니에 넣고는 교실로 들어왔지만 수업이 끝날 때까지 불안하고 초초한 마음은 교실 하나 가득 메웠다. 한편으로는 계란이 깨지지 않을까 염려되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조심하며 조바심 가득한 마음으로 그날 학교 수업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었으나 그날 이후 선생님께서는 다른 급우에게는 기성회비를 납부하라고 말씀은 하셨던 것으로 기억되나 나에게만은 1학년이 끝날 때까지 한번도 기성회비 납부에 관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 그때는 선생님의 고마운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었고 단지 기성회비 독촉을 하지 않으시니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철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슴에 선명하게 그려지며 지금까지 감사함과 그리움으로 남아 있다. 세월이 너무 흘러 지금은 분명 고인이 되셨겠지만 어렴풋이나마 선생님의 영상이 떠오를 때면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더욱 진한 색으로 덧칠을 하여 고이고이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 최소한 존함이라도 기억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알 길이 없으니 그것이 너무 죄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을 짓누를 뿐이다.



Letter 14

삼포세대인 우리 집 아들

윤종분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동

바쁜 일로 남편과 정신없이 걸어가는 데 이십대로 보이는 한 청년이 광고 전단지를 코앞에 쑥 내밀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꺼내 그걸 받는 게 귀찮아서 그냥 매몰차게 외면하며 가다가 발길을 돌려 "그거 주세요" 하며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중요한 거 같지도 않은데, 왜 다시 가서 받아와?" 하더군요. "응,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같아서 받았어. 들고 있는 전단지 다 돌려야 학생도 집에 갈 거 아니야. 당신도 가서 하나 받아오지 그래. 근데 걱정이네. 이 칼바람을 맞으며 고생하는 데 고생한 만큼 만족한 돈이나 받을 수 있을까?" 갑자기 그 청년이 아들 같은 생각이 들어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도 아들과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느 유명 인사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

녀를 신의 직장이라 하는 공기업에 취직을 시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있자니 마음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 아빠 엄마는 저런 능력도 없고, 내 놓으라는 인맥도 없고, 그렇다고 물려 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생고생 하는 거지 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너 혼자 일어서려면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달리 해줄 말이 없어 아들을 닦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갔고, 취업 준비도 꼼꼼히 해서 대기업은 아니지만 취업을 해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됐고 결혼만 시키면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을 텐데, 글쎄 결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들은 결혼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좀 여유가 생기면 친구와 여행을 떠나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저는 속이 탑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결혼에 관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아들, 쓸데없이 돈 뿌리지 말고 이젠 결혼 좀 해야지. 그렇게 놀다 결혼은 언제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삼포세대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때서?"

"엄마,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이백만 원 조금 넘게 월급 받는데 엄마 세대가 하늘 끝까지 올려놓은 가격의 집은 언제 사고, 그 돈으로 결혼을 어떻게 하며, 아이를 낳으면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결혼도 집도 아이도 포기하고 산다고 해서 삼포세대라고 하는 거야. 친구들도 결혼하는 그날로 인생 종친다고 말하는데, 부모가 자꾸 결혼하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그렇다고 결혼 안 하고 살거니?"

오늘도 결혼 문제를 놓고 답도 못 찾고 줄다리기만 하다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도 했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알뜰살뜰 모아서 작지만 내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적은 월급 받아서 고단한 삶이 보이는 고달픈 길을 왜 가냐며 혼자 잘살겠다고 하네요. 아들 말을 무시하고 등 떠밀어 장가를 보내야 하는 건지, 마음만 답답합니다.

나는 이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김 윤 선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당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4학년 김윤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가가 꿈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께서는 수화를 못하시는 청각과 언어 장애인 이신데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이 수화를못하시는 청각 장애인 분들께 저의 그림을 보시고 슬픈 감정, 웃긴감정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께서는 말로표현을 잘 못하시고 마을회고논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드린 사탕과 빵 등등을 할아버지가 드시지 않으시고 다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재롱잔치 CD를 보여드리려 했던 그날 할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없이 사실고 계신 할머니께서는 아무아주머니 들에게 하지도 않은 말인데 발음때문에 오해를 받으실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쫀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처럼 가끔 그런일이 있으시거나 감정을 확실히 못느끼시는 청각,언어 장애인 분들께 저의 그림을 보여드려서 확하게 웃으실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때 사랑한다고 자주 못해드렸던 제가 원망스럽고 후회 스럽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늘 존경하고 사랑 합니다!"

저는 이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박예진 | 동부초등학교 5학년

저는 어른이 된다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아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거쳐왔을텐데 왜 어린이의 마음을 모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됩니다. 이제 예쁜 치마와 옷을 입고싶은데 저희 할아버지 께서는 좀더 따뜻하고 이상한 옷이라고 하십니다.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멋진 옷을 입고 싶었을 건데 왜 어린이에게 그런 옷을 입지 못하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놀이를 할땐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공부보단 놀이가 어린이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아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김다현 | 덕풍초등학교 3학년

저는 이제 11살이 되는 김다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되고싶은 어른은 친절한 어른입니다. 왜냐면

제가 E-마트라는 곳에서 길을잃어 버린적이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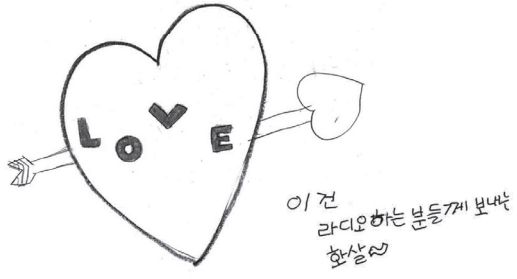
그때 친절한 어른한테 핸드폰을 빌려서엄마를 찾아는데

그때 그게 기억에 남아서 그러게 친절한어른이

되고싶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하고싶은 것는

독거 노인들분 들을 도와주고싶고 걱정거리 기부하고싶습니다

저는 그런어른이 되고싶습니다.꼭 되고싶습니다.



이건 라디오하는 분들께 보낸 화살표

친절한 어른

조희정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희은 아줌마, 석우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대안 초등학교 1학년 2반 조희정 입니다. 저는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아이들 한테 친절 하게 대해주고, 아이들이 잘못 하냔 혼내지 않고 친절하게 "앞으로 하지 마."라고 할 거고 친절하게, 예의있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고, 바보지 않으면 공부하라 그럴거고 친절한 엄마가 될 래요.

희은 아줌마, 석우 아저씨 안녕히 계시세요

양손에 행복을 바르다

IBK기업은행 동시화지점 거래고객

㈜비엔씨 코리아 김미경 대표

글 | **김하늘** (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봉숭아꽃이 봉오리를 피울 무렵, 삼삼오오 모여 앉아 손톱물을 들이던 것도 추억이 돼 버린 지 오래다. 이제는 네일아트 숍 없는 동네가 없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는 셀프 네일아트에 관한 게시글이 하루에도 몇 백, 몇 천 건씩 올라오는 시절이 됐다. 언제부터 이렇게나 다양한 컬러의 매니큐어가 출시된 것일까? 그 답을 ㈜비엔씨 코리아의 김미경 대표에게서 들어봤다.

"30년 전만해도 국내에서는 매니큐어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국내 최고의 화장품 회사도 매니큐어를 수입해 판매했고, 그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매니큐어의 색깔도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매니큐어 제품은 다른 화장품과 다르게 제품 회전율이 좋았습니다."

남대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매니큐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꿰뚫어 본 창업주는 국내 최초로 여러 가지 색깔의 매니큐어를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매니큐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비엔씨 코리아가 처음이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했던가.

10여 년간 공장을 임대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비엔씨 코리아에게 IMF 금융위기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했다. 시화공단의 몇몇 공장이 IMF 금융위기라는 거센 폭풍을 피하지 못한 채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때 내놓은 공장을 ㈜비엔씨 코리아가 분양을 받아 지금껏 꾸준히 회사를 키워왔다. 500평으로 시작한 공장은 이제 그 10배인 5,000여 평 규모로 확장됐다.

김 대표에게 ㈜비엔씨 코리아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묻자, 돌아온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내 매니큐어 생산 업체 중에는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습니다. 부자재를 대기업에서 받아 임가공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저희 회사는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각종 부자재를 자체 생산 및 직수입하고, 14년 전부터는 중국 법인을 세워 공장을 운영하는 등 생산 단가를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 생산, 가공까지 전 공정을 직접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법도 하련만, ㈜비엔씨 코리아에서 10년 넘게 일한 장기근속 직원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어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직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퇴보한 적 없이, 매년 진일보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다 보니 많은 직원들이 오랜 시간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조금씩 발전하는 사내문화를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 믿으며 회사의 발전에 힘을 보태준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비엔씨 코리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한 우물만 판 전문 기술자들이 끊임없이 신제품 개발에 몰두한 끝에, 현재 생산 중인 매니큐어 색깔만 1,000여 종이 넘는다. ㈜비엔씨 코리아의 제품을 보고 관련 기업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자체 브랜드인 오가닉팜, 국내 기업인 프로랑스, 한국 다이소는 물론이고 일본 다이소, 중국 비엔씨 차이나(BNC China), 미국 키스(KISS), 산티(SANTEE) 등 해외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 동남아, 이란, 러시아 등지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비엔씨 코리아는 작년에 추가로 건설한 5,000여 평의 공장에 설비가 갖춰지는 대로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회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회사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업체와 교류하면서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 세계 최대 매니큐어 생산업체로 나아가겠다는 ㈜비엔씨 코리아. 그들의 곁에는 IBK기업은행 동시화지점이 있다.

"공장을 처음 분양받을 시점에 IBK기업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동시화지점이 개점하던 시점부터 거래하기 시작했으니 오래된 인연입니다. 일전에 지점을 방문했더니 창구 직원이 동시화지점에서 개설한 통장 중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오래된 통장 계좌라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IBK기업은행 동시화지점 양화영 지점장도 이에 질세라 ㈜비엔씨 코리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번에 신축한 공장은 시화공장에 비해 10배 이상 규모가 큽니다. 사업도 10배 이상 성장해서, 앞으로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비엔씨 코리아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동시화지점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라며 힘을 실어준다.

경기가 불황일 때 저렴한 가격에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이 잘 판매되는 현상을 흔히 '립스틱 효과'라고 한다.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 파생된 말이지만, 이제는 '매니큐어 효과'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고, 기분전환도 할 수 있는 제품, 매니큐어. 이 제품 하나로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하다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어느 새 입가에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IBK기업은행 동시화지점 양화영 지점장(왼쪽)과 ㈜비엔씨 코리아 김미경 대표(오른쪽)

TIP 김미경 대표의 성공 노하우

1. 노력 :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계발한다.
2. 인재 : 직원이 최우선이다.
3. 정직 : 모든 고객을 진실하게 대한다.

㈜비엔씨 코리아
대　표　김미경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안석리 437-14 (070-4904-9701)

IBK 아이행복카드 한 장으로
우리 아이 7세까지 **교육비 걱정 끝!**

IBK아이행복카드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정부 복지서비스(바우처)지원

보육맘 특화서비스	육아/교육, 의료, 온라인쇼핑, 외식/커피, 이동통신 청구할인
그린카드 멤버십서비스	친환경 제품 가맹점 에코머니 적립 /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할인
롯데멤버스 다둥이클럽 서비스	40여개 롯데 제휴사에서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롯데마트 다둥이클럽 회원 혜택 제공

※ 신용/체크카드 할인율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전월 이용실적 충족 조건 및 통합할인한도 내에서 제공되오니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구분 : 신용/체크카드 · 발급브랜드 : UnionPay · 발급대상 : 개인회원 · 연회비 : 면제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5 – 93호 (2015. 01. 16) CE673 게시기한 : 2015.07.16
· 이 안내문은 2015.01.16일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는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처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시 즉시 안내합니다. 2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됨으로써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은행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신용카드 사용, 갚아야 할 빚입니다. – 연체 이자율(최저 연 16.5%~최고 연 24.0%)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보다 친근하게, 보다 가까이
우리 모두의 곁에 살아 숨쉬는 브랜드로 머물며
언제까지나 사랑받는 이름이고 싶습니다.

Barunson+
(주)바른손플러스
www.barunsonplus.co.kr
www.ebarunson.co.kr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41, 503
TEL. 02-801-8900

IBK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여성시대
양희은 · 강석우입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헌옷아빠의 새 웃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동의 안태홍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안녕하세요? 헌옷아빠들입니다."

아침 10시 인천광역시 삼산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며 헌옷아빠들을 반갑게 맞은 이는 주부 조민희 씨다. 두 아이의 엄마인 조민희 씨는 헌옷아빠들의 단골 고객이다. 매달 한차례 여고 동창생들과 함께 안 입고 안 쓰는 헌옷, 이불, 가방, 책 등을 집에 모아두면 헌옷아빠들이 와서 가져간다.

그것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현금을 주고 가져간다.

"여고 동창생 7명이 매달 모임을 해요. 그때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저희 집에 가지고 와요. 그럼 그걸 모아두었다가 이분들이 오시면 드리지요. 그럼 몇 킬로그램인지 무게를 재고 나서 바로 현금으로 주십니다. 매번 한 5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걸로 맛있는 것도 사먹고 회원들 경조사가 있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민희 씨처럼 헌옷아빠들을 이용하는 가정은 400가정쯤 된다.

쓸모없는 물건을 치우며 집안 정리를 하고 그걸로 용돈도 쓸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헌옷아빠들'을 운영하는 안태홍 씨는 올해 서른일곱 살의 가장이다. 효빈, 유빈, 예빈, 도현이의 아빠인 안태홍 씨가 '헌옷아빠들'의 문을 연지는 이제 9개월 남짓.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하시던 중장비 일을 배워 굴삭기를 운전하며 청춘의 꿈을 불태웠다. 결혼도 하고 아이들의 아빠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중, 2년 전 잘 아는 후배의 권유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 말았다. 그 와중에 정신적인 지주였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하시게 됐다. 서울의 제법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후 쇼크와 부작용으로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갑자기 찾아온 사업 실패와 늘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아버지의 부재는 더 이상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의 좌절을 안겨주었다.

그리운 아버지를 보고 싶었던 안태홍 씨는 전북 김제에 있는 선산에 가서 아버지가 심어두셨던 소나무 밑에 앉아 울고 또 울었다. 재기를 꿈 꿀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며 소나무에 끈을 매달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큰딸 효빈이의 문자였다.

〈아빠, 어디세요? 보고 싶어요.〉

그 한 통의 문자에 아내의 얼굴이 그리고 네 명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굳은 다짐을 했다.

'지금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지만, 나에겐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금쪽과도 같은 네 명의 사랑스런 아이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라고 열심히 살자!'

그렇게 안태홍 씨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다시 살게 됐다.

재기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찾던 중 우연치 않게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게 됐다. 신발도 옷도 없이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아, 저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쉽게 버리는 옷이나 신발을 모아서 그쪽 아이들에게 보내면 좋겠다' 싶었다.

그렇게 생각의 씨가 심어지고, 동네의 헌옷 수거함을 지나는 중 한 아주머니가 아들과 함께 헌옷을 잔뜩 들고 나와 낑낑대며 수거함에 옷을 밀어 넣은 모습을 보며 '저렇게 힘들게 집에서 가지고 나와

버리는 게 아니라 돈도 받고 간편하게 버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구체적인 방법이 떠올랐다. 머릿속에 전구에 불이 켜지듯 환한 빛이 밝혀졌다.

트럭을 한 대 구입하고 전단지를 만들고 현수막을 걸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렸다.

〈헌옷, 신발, 가방, 카펫, 커튼 버리지 말고 파세요. 전화주시면 헌옷아빠들이 방문하여 수거해 드립니다.〉

홍보를 한 지 며칠 후부터 문의가 들어오더니 이젠 400여 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헌옷아빠들'의 주 고객들은 20~30대의 젊은 엄마들이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헌옷이 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다.

안태홍 씨는 하루 평균 6~7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집 한쪽 구석에 모아 놓은 옷이나 신발 가방을 커다란 포대에 담고, 가져간 저울에 무게를 달아 가격을 정하여 계산을 하고, 사무실 겸 창고가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 모아진 물건들은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지와 무역을 하는 회사에서 한꺼번에 가져간다.

수거 가능 물품과 시세는 헌옷, 신발, 가방, 커튼, 이불, 카펫, 속옷은 킬로그램 당 500원이고 컴퓨터, 냄비, 프라이팬, 책, 폐전선 등도 가격을 쳐준다.

안태홍 씨는 헌옷 수거를 통해 자신감도 되찾고 가장으로서의 든든한 뿌리내림도 할 수 있게 됐다. 하루 종일 무거운 물건을 이고 지고 쌌다 풀었다를 반복하다보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볍다.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먹고 나서 아이들 목욕은 가장인 안태홍 씨 차지다. 뽀송뽀송 말갛게 씻긴 아이들과 함께 이부자리에 누워 동화책을 읽다보면 어느새 새근새근 소리를 내며 잠이 드는 아이들.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한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헌옷아빠들'은 공휴일과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날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이다.

가정을 지키고 더불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입고 신을 걸 마련해 준다는 보람으로 안태홍 씨의 하루하루는 반짝거린다.

"일이 더 잘돼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헌옷을 분류하며 환하게 웃는 안태홍 씨의 얼굴에서 이 시대 가장의 애환과 즐거움이 함께 보인다.

코너 속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85 **공감사연 공감전화** 13년 정든 가게를 비우려고 합니다
88 **장용의 단필충** 축복받은 몸
94 **나의 연애시대** 다리에서 시작된 인연
98 **노래 하나 추억 하나** 여고시절

공감사연 공감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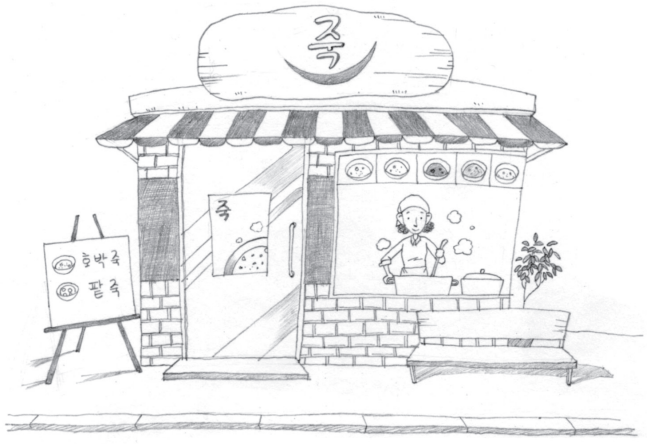
13년 정든 가게를 비우려고 합니다

강경민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1동

저는 울산 남자와 결혼해서 13년째 한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 중인 올해 44세의 자영업자예요. 결혼하고 5개월 뒤 남편과 함께 바로 장사를 시작했기에 어려움도 많았고 지금까지 온 가족이 고생해온 셈이지요.

저나 남편이나, 늦은 나이에 모아둔 여윳돈 없이 결혼했지만 뭔가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점포를 얻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프랜차이즈 죽 전문점들도 많고 '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대중화되었지만 그때는 죽을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서 판매와 배달을 한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죽으로 메뉴를 정한 저희 부부는 무작정 서울의 오래된 죽집을 찾아 사흘간 돌아다녔습니다. 몇 번이나 먹어 보고 연구를 하고, 또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더군요.

저희는 허름한 가게를 얻어서 내부를 고치고, 지금의 우리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두 아이를 낳아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까지 가게에서 키우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 고생이 컸습니다. 허나 그 고생 덕분일까요? 중간에 가게도 옆으로 터서 두 배로 키웠고, 제법 입소문도 나서 울산의 죽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진 집이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지만, 큰아이가 6학년, 작은아이가 4학년이 되는 동안 가게를 하면서 정말 울기도 많이 했고, 고생도 엄청나게 했던, 어쩌면 우리 젊은 30대 시절이 고스란히 담긴 정든 가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게 주인이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얘기가 세입자들 사이에서 도는가 싶더니 작년 마지막 날에, 새 주인 부부가 와서는 건물 잔금을 치르고 왔다면서 두 달 뒤 재계약 때는 월세를 3배나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 노후되었으니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를 전부 올리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저희 부부는 새 주인 부부의 청천병력 같은 소리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내용증명이란 게 날아왔네요. 저는 남편과 함께 소리 없이 울기도 했고, 예전의 가게 주인을 원망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엔 모든 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재작년에 가게 실내 인테리어까지 새로 바꾼 상황에 권리금은커녕 이사비조차 못 받고 몸만 나가야 하는 지금의 이 사태가 참 막막합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기운을 차려야겠지요. 아이들에게 상황 설명도 차분히 해주었고, 가까운 곳에 사시는 시어른들께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충격에 휩싸여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 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혼자 몸으로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셨는데 시집가서 고생스럽게 산다고 늘 걱정하시는 친정엄마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도전할 기회로 보고 또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고심 끝에 남편은 큰아주버님 일을 당분간 돕기로 했습니다.

애기 손님부터 어르신 손님들까지 1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던 단골손님들께는 정말 감사했고,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울산 무거동 〈해 뜨는 아침 죽집〉을 이용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가게를 접으면 일주일 정도 가족여행을 갈 생각입니다. 좋은 기운을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성시대를 듣다보면 가게를 정리하신 분들의 사연이 많이 나오던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힘든 상황을 이겨내신 여성시대 가족들의 지혜도 얻고 싶습니다.

장용의 단·필·충

축복받은 몸

김근욱 | 인천광역시 남구 숙골로

저는 올해 35살로 전역한지는 12년째 되었고, 세 아이의 아빠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마치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축복받은 몸매의 소유자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무녀독남의 외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7남매, 어머니는 9남매이기에 가족이 많은 것이 힘드셨는지 '하나만 낳아서 잘살자'라는 생각으로 저만 낳으셨지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이들보다는 많은 사랑과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귀여움을 받음과 동시에 몸도 서서히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잘 먹어서인지 초등학교 때는 1년에 거의 10cm씩 자라기 시작하여 6학년 때 키가 170cm가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성장이 멈추지 않아서 중3때 지금의 키인 185cm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키가 자라고 몸이 좋아졌으니 '정말 축복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축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무게였습니다. 중3 때 90kg의 몸무게를 가진 축복받은 아이가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 생각하면 185cm에 90kg, 인상도 조금 동남아시아 풍의 까무잡잡한 중3 아이인 저를 지도하는 담임선생님은 참 무서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나름 선생님 말씀은 잘 지키며 모범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저의 몸무게는 고등학교가 되어도 줄지 않아 고3을 마치고 98kg이 되더군요. 그 후 대학에 들어가 MT니 뭐니 놀다보니 몸무게가 105kg까지 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활을 즐기던 저에게도 올 게 왔습니다. 그것은 입영통지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그냥 가면 되지 했는데 입영통지서를 받으니 정말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수소문을 해보니 115kg이 되면 현역으로 가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집근처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면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대하기 두 달 전까지 115kg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걸 압니다만, 매일 먹고 또 먹고 친구들을 만나서 먹고 자기 전에 또 먹고, 된장찌개에 밥 두 공기 먹고 바로 햄버거 세트 먹고, 계속해서 먹으면서 드디어 목표치보다 초과 달성된 118kg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대하기 전에 외아들이 군대 갈 것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어머니에게 웃으며 이야기했지요.

"엄마, 걱정 마. 잘 갔다가 금방 올게."

그리고 저는 논산으로 입대를 해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지요. 여러 검사를 받다가 드디어 나를 구해줄 키와 체중을 함께 측정해주는 기계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한 진단을 받았지요. '185.9cm에 119kg.' 속으로 환호를 지르며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겠구

나' 했습니다. 그런데 신체검사 종이에 군의관이 웃으면서 3급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3급까지는 현역입니다). 이상해서 군의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몸무게도 119kg 나가는데 왜 3급입니까?"

그러자 군의관이 웃으며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아들 병역비리로 법이 다 바뀌었어. 네가 185cm이니 공익을 가거나 면제를 받으려면 135kg이 되어야 해! 가서 살이나 열심히 빼다가 나와라" 설명했습니다.

제 자신이 한없이 한탄스럽더군요. 차라리 입대 전에 태권도나 운동을 하면서 군 생활을 준비할 걸, 요령 피우다가 더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신체검사가 끝나고 저는 훈련소의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여느 내무반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저희 내무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이 저와 비슷한 것이었지요. 김뚱땡이, 이뚱땡이, 정뚱땡이, 박뚱땡이. 맞습니다. 비만소대였던 것입니다. 저희 소대는 비만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소대였습니다. 내무반에 100kg이 안 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숨 막히는 곳이었지요. 제가 119kg이지만 몸무게 1등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면 큰형님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100kg이 넘는 거구들이 다 모여 있고, 목소리도 다 저음에 머리도 짧고, 참 가관이었습니다. 저희가 허둥지둥 하고 있는 사이에 소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기 비만소대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환영한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여러분들을 모두 100kg 이하로 만들 것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는 아침에 구보를 하지 않는다. 왜냐? 여러분은 달리기를 하기에

는 정상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정상적인 몸을 만들어보겠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줄넘기 1시간씩 하고, 식사와 부식은 내가 직접 배식하겠다. 1주일에 한 번씩 몸무게를 측정해서 제일 많이 뺀 사람은 전화를 시켜 주겠다!"

소대장이 말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은 간단했습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기. 바로 줄넘기와 식이요법이었지요. 말이 식이요법이지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밥 조금과 물 이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보통 병사의 1/3정도 배식을 받았고, 백숙이 나오는 날에는 국물 없이 밥 조금과 닭가슴살 1조각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래도 먹여주니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러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부식, 건빵, 맛스타, 쌀국수, 라면 등 여러 가지 부식들이 저희에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급이 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조교들이 건빵을 나눠줄 때면 소대장이 내무반에 찾아옵니다.

"너희들 건빵 먹고 운동 더 할래? 아니면 안 먹고 쉴래?"

그 상황에서 누가 "저는 먹고 운동을 더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줄넘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분 동안 줄넘기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대답하지요. "저희는 건빵을 안 먹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100일 휴가 나가면 슈퍼 가서 건빵 만 원 어치 사먹을 거다.' 그렇게 참고 참았습니다.

드디어 첫 주가 지나고 일요일 점호 직전, 몸무게를 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몸무게가 글쎄 108kg. 11kg이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병사보다도 많은 감량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는 일요일 오후, 1번의 전화찬스를 사용하여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건강하게 잘있다고 짧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군에 오기 전에 먹기만 했었는데 반강제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저는 어느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주의 훈련기간 동안 계속해서 몸무게를 줄여갔습니다. 훈련소의 시간들이 마무리되면 자대로 갈 줄 알았는데 5주가 시작되는 일요일에 갑자기 소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대단한 결실을 이루고 있음을 내가 직접 확인한다. 야! 20번 훈련병! 너 얼마나 빠졌어?"

"네! 20kg입니다!"

"훌륭해. 45번!"

"네! 9kg입니다!"

"어디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군 생활 할 수 있겠냐? 최소한 15~18kg 이상씩은 빼야 돼. 잘할 수 있겠지?"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육군훈련소 23연대 체육대회가 있다. 23연대에는 비만소대가 3개가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특별종목으로 '비만소대 줄넘기' 종목이 있다. 모두가 참여하여 개수를 더해서 가장 많은 횟수를 한 중대가 이기는 것이다. 이 종목은 계주 다음에 하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 최선을 다하도록!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줄넘기 훈련은 강도가 더 해졌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다이어트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육대회에서 저희 중대는 7, 8중대의 뚱땡이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우승을 했고, 저희는 그날 밤 우승 기념으로 맛스타 한 개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훈련소 6주의 생활을 마치고 자대에 가게 되었지요. 자대에 갈 때 저의 몸무게는 85kg. 무려 34kg을 감량해서 갔습니다. 입대할 때 특1호를 입던 제가 자대에 가서 치수를 3호로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일 휴가 때 몰라보게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시며 요즘 군대 좋아졌다고 하더니 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며 갈비며 삼겹살이며 이것저것 사주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저를 흐뭇하게 보시며 "병장 때까지 잘 유지하고 나와라" 하셨습니다.

저는 군대에서의 몸을 잘 유지하여 전역 후 좋아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여 아이 셋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있는 미필자들이여, 군대로 가십시오!

나의 연애시대

다리에서 시작된 인연

애청자

저는 대학병원에서 야간 접수 업무를 했습니다. 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도 할 겸 취미 삼아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작은 개울을 따라 나 있는 산책로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첫날은 가벼운 마음으로 걷기 운동을 하며 길을 익히고, 다음날은 더 멀리, 그 다음날은 조금 더 멀리 멀리 걸었습니다. 그렇게 운동량을 늘려가며 열심히 걷기 운동을 시작한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 멀리 목조다리 앞에 빨간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가까이 가서 읽어보니 그것은 공사 안내문이었어요.

〈약 한 달 동안 목조다리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010-0000-0000〉

매일 그 다리를 건너서까지 운동을 했던 저는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아예 이 길로는 다닐 수 없는 건지 물어보기 위해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무슨 이름으로 저장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다리 공사'라고 저장해 놓았어요. 며칠 뒤 운동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호음이 끝날 때까지 전화는 받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는데요. 직접 녹음을 한 건지 경쾌한 배경음악 소리에 자기소개가 나오더군요.

"안녕하세요? 김동민입니다. 공사 중일 때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5분 정도 지나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씩씩하고 우렁찬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저한테 전화하셨죠?"

"아, 네. 산책로에 있는 목조다리 말인데요. 거기 보수공사 하시는 분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죠?"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매일 그쪽으로 운동을 다니는데요. 공사기간 내내 그쪽을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건가 하구요. 만약에 도보가 통제되면 제가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해서요."

"아닙니다. 다리 보수공사는 시작되지만 다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보수하는 거라 통행에 큰 지장은 주지 않을 겁니다. 계속 다니셔도 됩니다. 하하하~."

친절한 설명에 마지막에 호탕하게 웃는 소리까지,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무척 시원시원한 성격에 박력이 넘치는 남자일 것 같다는 상상이 되더군요.

사실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 딱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도 저는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목조다리 주변에서 왁자지껄하게 공사가 시작되고 있더군요. 공사현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저는 속도를 늦췄고, 우연히 공사하는 분들의 옷에 붙은 이름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나는 이름 하나! 그것은 바로, 연결음에서 나왔던 그 이름 '김동민'이었습니다.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근데 누구신지 제가 잘..."

"어제 다리 공사 때문에 문의전화 드렸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다리라 보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럼 수고하세요."

간단히 인사를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집에 가는 내내 이상하게 그분 이름이 머릿속에 뱅뱅 맴돌더라고요. 20대 끝을 달릴 때까지 여러 번 연애를 해봤지만, 이런 설렘은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운동을 하면서, 공사현장을 지날 때는 그분과 늘 눈인사를 했는데 그 사이 점점 제 설렘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가면서도 여자인 제가 호감을 표현하기가 어렵더군요. 결국 한달 간의 공사는 끝이 났고, 저는 애가 탔지만 마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제 근무가 3교대로 바뀌면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운동복 차림을 하고 열심히 파워 워킹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의 한 남자가 제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바로 '다리 공

사!'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고 싶은데, 혹시나 몰라보면 어쩌나 싶어서 꽁꽁 싸맨 목도리를 밑으로 내리고 추워서 썼던 모자도 벗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더군요.

"아! 그때 그분 맞죠? 이젠 저녁에 운동하세요?"

"맞아요. 다리 공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제 입에서는 뜬금없이 감사 인사가 튀어나왔고 이렇게 또 헤어지는구나 하며 돌아서 오려던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한방차 전문점이 생겼는데 건강에 좋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저도 마침 커피를 끊고, 건강차를 마시려고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잘됐네요."

저는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 했나 싶을 정도로 곧바로 대답을 했고,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시작됐습니다.

그 뒤 6개월 동안 시간이 맞을 때마다 같이 걸으며 서로의 호감을 인정하고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평범한 연애 끝에 우리는 올해로 결혼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남편도 저와 처음 통화한 날 기분이 묘했대요. 공사를 문의해 오는 전화는 많이 받아봤지만, 약간의 설렘이 느껴진 건 제가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 언젠간 만날 것 같아서 몇 번을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우연은 필연을 가장해 온다는 사실! 그리고 보수 중인 다리도 다시 보다 보면 인연은 꼭 만난답니다.

노래 하나 사연 하나

여고시절

박정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일을 거들다 취업할 나이가 된 저는 객지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 떠나는 날 아버지는 곳간 깊숙이 아껴 두던 곡식들을 지게에 짊어지고 저를 앞세우고 장에 가셨는데 아버지는 곡식을 팔고는 "뒤따라 갈 테니 먼저 버스정류장에 서 있거라" 하셨지요. 한참 후에야 돌아오신 아버지의 손에는 카세트라디오가 들려 있었습니다. 객지로 나가는 딸에게 뭔가 사주고 싶었던 아버지는 이제 떠나야 하는 저에게 "끼니 거르지 말고, 행동거지 조심하고, 정 힘들면 바로 내려 오너라" 하시며 큰 카세트라디오를 손에 쥐어주셨지요. 아버지는 그렇게 저를 버스에 태우고는 제가 탄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빈 지게를 매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대기업 직물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다니는 대다수가 미혼여성이었고, 회사의 기숙사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여 인

근에 방을 얻어 자취를 해야 했는데 저는 두 살 위의 선옥 언니와 사글셋방에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딸린 달동네의 가장 저렴한 곳에서 묵었어요. 우리 방에 횃대걸이 간이옷장과 화장대 겸 쓰는 쪽상을 놓으니 겨우 둘이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왔는데 워낙 방이 비좁아서 각자의 물건이 서로의 공간에 침범하지 않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워낙 귀중품이랄 게 없는 살림이라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카세트라디오가 특별히 더 소중한데 혹시라도 폐가 될까봐 라디오를 못 듣다가 언니의 양해를 얻어 공동물건처럼 사용했어요.

겨울밤에는 연탄을 아끼느라 겨우 미지근할 정도인 아랫목에서 자곤 했습니다. 선옥 언니는 항상 저에게 더 따뜻한 곳을 양보했는데 착한 언니 덕분에 객지 생활이 외롭지 않았고 둘 다 잠이 들지 못하는 밤이면 라디오를 함께 듣곤 했어요. 이맘때쯤이면 졸업 시즌이라 라디오에서는 김인순 씨가 부른 〈여고시절〉이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여고시절〉을 듣고 있던 선옥 언니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정순아, 우리도 학교 더 다닐래?" 물었지요. 그때는 학력차별이 심한 때여서 사원들을 졸업장 기준으로 대했는데 제가 있는 공장의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은 중학교 졸업자들이 많아서 '공순이'라며 우리를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더 많이 배워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것 밖에는 없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사내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에 언니와 함께 입학하였습니다.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야간 수업에 매달리는 빡빡한 현실을 서로 의지하며 버텨나갔어

요. 많지 않은 급료를 다달이 등기우편물 봉투에 넣어 부치면서 그 안에 교복 입은 사진을 넣었을 때는 뭔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셋방과 직장, 학교를 오가기를 3년, 우리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날 밤은 하늘에서 어찌나 많이 눈이 쏟아지던지 참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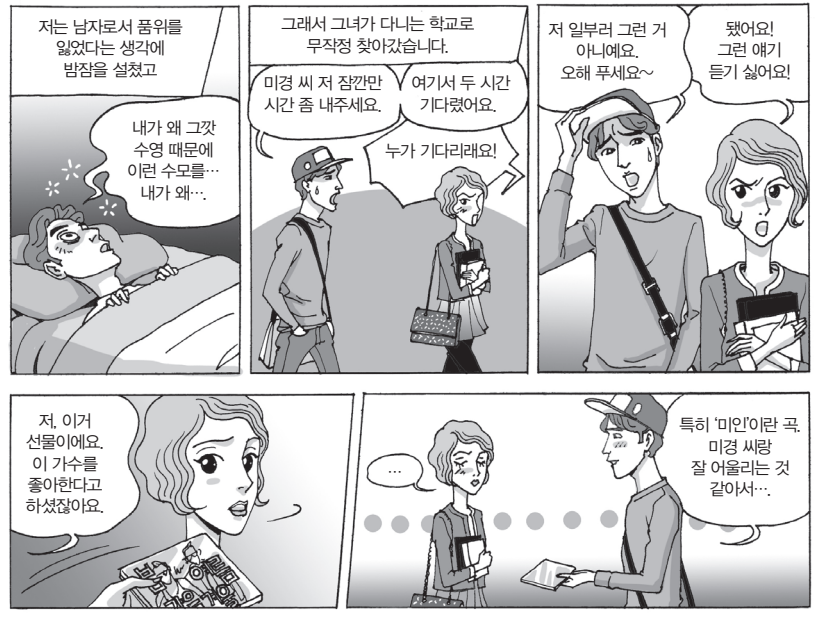
하지만 꿈을 이뤘건만 우리는 줄줄이 크는 동생들에게 배울 기회를 챙겨줘야 될 맏이였기에 묵묵히 한 회사에서 조장, 반장, 주임직까지 맡고 11년간의 직장생활을 접고서야 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났기에 주어진 숙명처럼 묵묵히 감내한 산업역군 누나세대들, 그들의 꿈과 애환을 떠올리며 언니와 함께 들었던 〈여고시절〉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보트 위에서

그림 | **김곡, 우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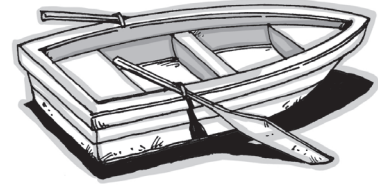
※ 〈여성시대〉 가족 **조수현**(부산광역시 북구) 씨의 사연을 각색한 만화입니다.



그 후 우리는 매일 만나 데이트를 했고
정확히 3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악몽 같았던 일이
다 우리가 이어지기 위한
해프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괜찮은 여자를
만나게 해준 그 보트를 생각하면
그냥 흐뭇한 웃음이
나오니 말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법

글 |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트위터 아이디 @suhcs)
일러스트 | **조신애**

요즘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여성 역시 충분히 교육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아실현 의지가 늘어나고 최근의 경제 사정 역시 혼자 벌어서 가정의 생계를 꾸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맞벌이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이에 맞는 보육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린이집과 관련한 뉴스가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조부모 육아로 인한 갈등이나 조부모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훈육과 관련해서 조부모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이 다른 경우 이와 관련한 갈등이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조부모와 부모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대를 살아왔기에 가치관도 다르기 쉽고, 경험의 차이도 큽니다. 정보를 접하는 경로도 다릅니다. 조부모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중요시하는 반면 부모들은 책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상담 중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친할머니가 키우는 경우였습니다. 친할머니가 키우면서 아이가 점차 떼가 늘어서 소심하고 조용하기만 하던 아이가 밖에서 소리도 지르고, 싫다고 울고 떼쓰고 토하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볼 때는 할머니가 제대로 훈육을 해주지 않아서 아이가 고집이 더 세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가 고집을 부려도 할머니는 거의 들어주시거나 다른 관심사로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니까요. 아이의 고집은 점점 심해집니다.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보이면 누가 가지고 놀고 있든 밀치고 뺏으려고 하고, 엄마나 아빠, 할머니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부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경우 부부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아이의 떼가 늘어난 것은 꼭 시어머니가 키워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18개월이 지나가면 아이들은 고집이 생기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직 통제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에 자신이 바라는 대로 뭐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신과 다른 욕구를 갖고 있음을 아예 알지 못합니다. 결국 부모가 나서서 아이를 가르치지 않을 수 없죠. 훈육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훈육이라고 해서 무섭게 아이를 야단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행동 중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도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이럴 경우 아이가 부모를 멀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직장일로 아이를 볼 시간도 얼마 없는데 훈육에 집중하다가 자칫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지

고 아이가 부모를 싫어할 수 있죠.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부모에게 저는 세 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째,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부모가 빠르게 표정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 들어주지 않고 안 된다는 표정을 짓지만, 떼쓰기를 멈추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에게 밝게 웃어줍니다.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기분이 풀렸는데 부모는 앙금이 남아 계속 아이가 얄미울 수 있습니다. 아이의 떼쓰기에 지쳐 표정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집니다. 아이의 불안도 커지고요.

부모는 빨리 나쁜 감정을 털어야 합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려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덜 자라서 그러는 것이고, 세상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런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고, 아이는 부모에게 배워서 자기 욕구를 참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아이는 부모를 좋아할 때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더 많이 웃어주세요. 함께 놀이도 해주시고요. 훈육할 일이 많을수록 아이와 잘 지낼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둘째, 불안해하지 말고 완벽한 훈육은 포기하세요. 아이의 잘못을 보면 부모는 다 고쳐주고 싶습니다. 아이는 잘못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잘못을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아이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아이는 부모를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선을 정하세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만 훈육하겠다는 기준을 정해 그 선을 넘지 않으면 훈육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두 달 동안은 아이가 주먹으로 어른들을 때리는 것만 못하게 하고, 다음 두 달은 식사 과정을 주로 가르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죠. 그 외의 잘못은 너그럽게 봐주고 내가 계획한 부분에 훈육에 들일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특히 초보 부모들이 조심할 점은 훈육의 대상을 구별하는 부분입니다. 훈육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행동'이 아닌 '감정'은 훈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을 빼앗으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우는 것은 훈육하지 않습니다. 우는 것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감정의 표현은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만 울라고, 이게 울 일이냐고 야단치지 마세요. 부모는 왜 안 되는지 이유만 설명하고 물러나면 됩니다. 아이는 충분히 울어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자세히 보고 떼를 쓰는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끔은 아이가 떼를 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아이를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더위를 많이 타는데, 부모가 외출할 때마다 계속 두꺼운 옷을 입히는 경우죠. 외식을 나갈 때 아이가 놀 거리를 안 갖고 간 다음 아이에게 말썽 부리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시원하게 입히면 되는데 부모가 아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미리 장난감을 준비하면 될 텐데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예측해 대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이가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린다고 아이에게 책임을 미뤄버린 것입니다. 아이에게 책임을 미루면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는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해서 아이를 돕는 것,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훈육의 목표를 정하는 것, 그리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때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꽃피는 시절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겨울은 가고 봄이 왔다. 그렇게나 기다리던 봄이 왔다. 설 지내느라 부산했고 정겨웠던 기억도 흑백사진처럼 멀다. 나는 1월 1일에는 시댁식구들과 함께 새해 첫날을 맞았고 설에는 모처럼 친정식구들이 다 모였다. 시조카들과 조카며느리 손자, 손녀가 놀러 와서 얘기 나누며 쉬다갔고 저녁 땐 남편의 절친인 기러기 아빠와 저녁 먹고 늦게까지 얘기 나누었다. 우리가 뉴욕 살 때도 다녀갔던 친구다. 그때 두 남자는 몇 년 만에 만났다는데 둘이 TV 속으로 빨려들 듯 골프, 야구 등 운동 중계를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열심히 시청하는 모습이 전부였다. "남자들은 그래! 뭐 꼭 얘길 해야 아나?" 남편의 답이었다.

그로부터 세월이 20년도 훌쩍 지났다. 이젠 둘이서 얘기가 많은가 보다. 떨어져 사는 애들 얘기, 사업 얘기, 아내 얘기 등…. 그분 말이 혼자 지내면서 8~9년 동안 한 번도 맛난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단다. 무얼 사도 한두 번 먹으면 그만인데 일단 포장이 너무 크고, 자꾸 권해서 작은 상자로 들여놓으면, 결국 버리게 된단다.

일본 큐슈 북쪽에 고쿠라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옛날엔 철강산업 도시여서 24시간 슈퍼도 처음, 조폭조직도 그곳이 처음 등등의 첫 기록이 많다. 오가다보면 거리에 노인들이 특히 많이 보인다. 그곳 대형 슈퍼에서 달걀을 1알씩 포장한 것을 보았다. 놀랍고 재미나고 이게 맞다 싶어 고개가 끄덕여졌다. 노인이 될수록 매일 장을 보라고 권한다. 친구도 취미도 딱히 없으면 하다못해 매일 소량씩 장보러 가서 사람 구경도 하고, 걷기도 하고 바깥공기를 쐬라고 얘기한다. 과일도 한 개씩, 양배추나 수박 등은 될수록 작은 포장이었으면 좋겠다. 다시 냉장고에 들일 필요 없이 먹고 치울 수 있는 분량!

그분 얘기가 자다가 추워서 깬단다. 파자마 위로 츄리닝을 목까지 지퍼 올려서 입고 다시 잔단다. 나는 "사람 운김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이 사람 늦게 들어오면 똑같은 온도 설정인데도 춥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개들도 좋아서 한바탕 난리치고, 그러면 집안도 따스한 기운이 들거든요" 했다. 아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옆에서 챙겨 줘야 할 때 이렇게 떨어져 사니 미안하다고 하더란다. 애들을 공부지옥에서 건져내, 좀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기 가서도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공부하라는 잔소리에 과외를 줄줄이 시킨다는데…. 참, 알다가 모를 일이다. 아버지로서 애들이 제일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 주지도 못해, 자라나는 꽃보다 귀한 모습들 다 놓치고 살며 무얼 위한 헤어짐인가?

아버지는 그렇게 혼자서 식구들 없는 휑한 집에서 추워하며 어떤 때는 신새벽에 일어나 TV나 보고, 돈 벌어, 돈 보내주는 존재로 건강이 흔들려도 누가 곁에서 알아채 주거나, 병원행을 권하지도 않는, 그런 일상으로 세월을 흘려보낸다. 그러면서 자기는 TV를 바꾸지 않기로 했단다. 시원하니 잘 뵈는 걸로 들였다간 시청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20인치로 보다가 눈이 침침하고 아프면 피곤해서 끄고 자야하니, 차라리 그게 낫단다. 함께 있어야 가족이라는 말 실감했다.

새봄이 왔다. 제주에 사는 친구들에게서 꽃소식이 계속 올라온다.

아빠를 부탁해

강석우 | 여성시대 진행자

지난 설 무렵, 방송하게 된 〈아빠를 부탁해〉라는 가족의 얘기 때문에 딸아이는 아버지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 궁금해졌고,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스스로 내게 묻다가 자연스레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던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부모는 자식의 추억 속에 있다고 하는데 내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도 그러셨고 돌아가신지 15년이 된 지금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도 내게 별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같이 여행을 가본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고 그 흔한 학교운동회에서의 추억도 없고 진지하게든, 살아가면서 슬쩍 지나가는 소리로든 별로 얘기를 길게 해본 기억조차 없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아버지, 그리고 그 집의 자식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구색 맞춘 가족 구성원끼리의 삶이었지 가정이나 가족이라는 애틋한 마음의 오고 감은 별로 있었던 기억이 없다.

내 아버지는 너무나 커다란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었다는 것은 내가 나이가 제법 들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다. 전쟁통에 가족 모두들 이북에 두고 내려와 남쪽에서 혼자 살아 내신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북에 두고 온 부모 형제가 얼마나 그리웠을까. 몸은 남쪽에 있었으나 마음은 북쪽에 있었을 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전쟁 통에 가족과 헤어진 아버지의 상황을 내 경우라고 이입을 시켜본다. 지금의 내 가족, 아내와 아들과 딸을 두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에서 서로 떨어져 그리워만하며 살게 된다면, 나 혼자 새로이 가정을 이루어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남쪽에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생각에 가슴 찢어지는 그리움으로 한 많은 인생을 살아낸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었으나 그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깊은 눈망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늘 있었다. 그때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런 슬픈 역사에 대해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렸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지만 때 늦은 후회이긴 하다.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고 보니 나이가 들어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것도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겉나이만 먹었지 속에 있는 나는 아직도 중고등학생일 때도 있고 스무 살 갓 넘은 나이일 때도 있으며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고 해봐도 마흔 중반을 넘질 않으니 연수만 많아졌지 철없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어린 마음이 아직도 있는 나를 보게 된다. 아마 아버지도 가슴속에 안고 있는 큰 슬픔에 대해 우리 가족에게 위로받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세월이 가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추억과 그리움으로 점점 종잇장처럼 얇아지는 듯하다.

만약, 딸아이가 아빠는 할아버지 하고 어떤 추억이 있냐고 물어 본다면 나는 입을 꾹 다물게 될 것이고 이내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을 흘릴게 뻔하다. 아마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해 여쭈었다면 아버지는 지금의 내 마음처럼 그리움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흐느꼈을지도 모른다. 딸과 방송을 하게 되면서 내 젊은 날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지 못했던 것이 자꾸 떠오르며 후회가 되는 요즈음이다.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일본 사회학자의 '젊은이론'

글 |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어린이'는 '내일의 희망'이라고 하고, '젊은이'는 '오늘의 희망'이라고 한다. '젊은이'라는 단어가 갖는 역동성과 잠재력은 그래서 사회와 조직의 심장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패기와 열정은 새로운 사회와 조직의 혁신을 가져오는 동력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들의 힘이 보이지 않는다. '철저하게 길들여진 세대', '스스로 어떤 목표를 이루어낼 수 없는 세대', '허약하고 자포자기하는 세대', '부모에게 늘 기대는 세대', '세상에 대한 고민보다 자신에 대한 불안함만을 생각하는 세대', 이렇듯 요즘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한탄과 자조는 이제 임계치를 넘어 부모세대로서의 무한한 책임감만을 강요당하고, 평생 사교육의 투기자본 제공자로서의 위상만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젊은 30대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본인이 20대 후반일 때 자신과 동년배인 일본의 젊은이에 대해 충격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한국전쟁과 동경올림픽 이후 고도성장을 계속하던 일본은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거품경제의 불황에 빠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일본의 젊은 세대를 걱정하는 '젊은이론'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저자가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충격파를 던진 이유는 바로 2011년 '일본국민 생활만족도 조사' 결과에 기인한다. 조사 결과 일본 20대 젊은이의 75%가 '지금 나는 행복하다'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물건도 사지 않고, 해외여행도 다니지 않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결혼도 하지 않으며, 초식생활을 하는 내향적 세대'로 평가받으며, 부조리한 일본식 사회와 위킹푸어, 젊은 세대에 불리한 산업까지 세대 자체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20대 젊은이가 행복하다라고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내일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것임을 저자는 설명한다.

일본 젊은이들이 이처럼 어려운 사회현상과 경제구조라는 현실에 안주하며 불투명한 미래에 현혹되어 되지도 않을 노력과 관심 그리고 도전적인 헌신에 자신을 던지지 않고, 하루하루 일상에 만족하며 인생의 행복을 현실에서 찾겠다는 스스로의 만족이 일본 젊은이들이 갖는 오늘의 '혁명'이자 최대한의 '자기행복'이라고 저자는 표현한다.

세상에 저항하지 않는 젊은이들, 노인세대보다도 더 극우보수로 논리와 역사적 당위성보다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편향적으로 몰입하는 세대들, 그들이 갖는 무저항의 폭력적 논리는 '행복하기 때문이다'. 결국, '더 나은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없어진 세대는 최소한 행복하면서도 내일이 없는 삶을 밀려나듯 선택한 결과다. 젊은이가 내일이 없으면 사회와 국가가 내일이 없다. 일본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제시한 도전적 담론이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공포를 전해준다.

이 책을 발표할 당시, 저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이 담론'이 사실 매우 왜곡된 것이며, 더 나아가 근대 세계가 날조한 신화라고 주장한다. '젊은이 연구'는 젊은이의 실체에 직접 다가섰다기보다 기성세대의 불만과 필요에 의해 제멋대로 '상상'된 이미지에 불과하다. 근대화 이후, 실재하는 젊은이를 '있는 그대로' 분석한 '젊은이 연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고령사회가 도래하면 젊은이가 이러한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젊은이를 비판의 타자와 이용과 기능의 수단으로만 평가한다면 국가와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한국의 젊은이도 다르지는 않은 평가 안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회가 그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책이다.

후루이치 노리토시 저 | 민음사 | 2014